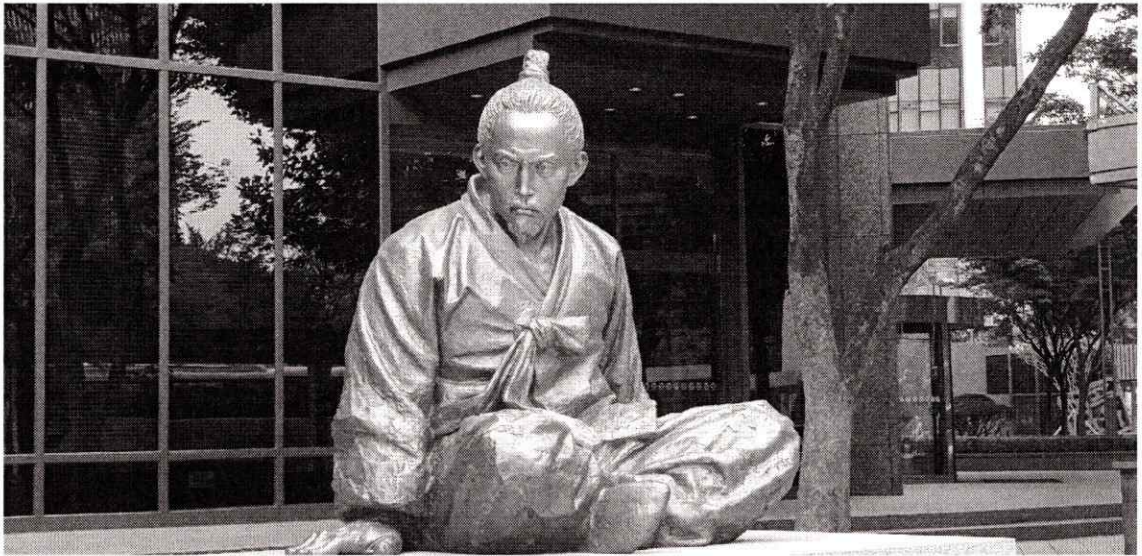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과 전봉준 가계 연구



- 장소 :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서울 종로구 동숭동 1-124 지하2층)
- 일시 : 2018년 9월 11일 13:30 ~ 18:00
- 주최 : (사)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일 정

◇ 등록 (13:30 - 14:00)

◇ 개회 (14:00 - 14:30)

진행사회: 하 정 우(국민대)

개 회 : 이 이 화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이사장)

축 사 : 박 원 순 (서울시장)

유 기 상 (고창군수) 김 영 종 (종로구청장)

이 승 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기조발제 (14:40 - 15:10)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과 전봉준연구소 구상>

.....이 이 화(건립위원회 이사장)

◇ 주제발표 (15:30 - 17:00)

사회: 배 항 섭(성균관대)

제1주제 : 전봉준 장군 동상 제작과정의 고증 문제

.....신 영 우(충북대)

제2주제 : 전봉준 장군의 전옥서 수감과 교형의 의미

.....왕 현 종(연세대)

제3주제 : 족보에 나타난 전봉준 장군 처가와 외가 검토

.....송 정 수(전북대)

제4주제 : 전봉준 장군 동상의 현황과 사례 비교

.....이 병 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종합토론 (17:00 - 18:00)

사회: 배 항 섭(성균관대)

토 론 : 김 양 식(충북학연구소)

은 정 태(역사문제연구소)

이 영 호(인하대)

문 병 학(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목 차

<기조발제>

전봉준 동상건립과 국민모금 과정 - 미래의 기억을 위해-----1p

이 이 화(건립위원회 이사장)

<학술발표>

전봉준 장군 동상 제작과정의 고증 문제-----13p

신 영 우(충북대)

전봉준 장군의 전옥서 수감과 교형의 의미-----25p

왕 현 종(연세대)

족보에 나타난 전봉준 장군 처가와 외가(진외가, 증외가 포함) 검토-43p

송 정 수(전북대)

전봉준 장군 상징물 검토-----57p

이 병 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전봉준 동상건립과 국민모금 과정

- 미래의 기억을 위해

이이화(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이사장)

나는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행사를 마치고 뒤이어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4권을 수집해 발간했다. 그런 뒤 나는 함께 일을 추진했던 정남기 신영우 신순철 문병학 배항섭(이하 존칭 생략) 등 관계자들을 만나면, 서울에 전봉준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서 서울에 동상을 세울 만한 마땅한 곳을 찾아 답사를 했다. 곧 남산 주변, 효창공원 일대, 종로와 사직공원 등지가 대상이었다.

2011년에 박원순 변호사(이하 존칭 생략)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후 가끔 박원순 시장을 만나면 전봉준 동상 건립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늘 그랬듯이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 전주에서 시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문병학 기념사업부장이 이이화가 건의한 전봉준 동상 건에 대해 말하고 협조를 요청하자 박원순이 그 구체적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다. 문병학이 이 대답을 나에게 전해주고 그 추진을 진행해 보자고 했다.

1. 사단법인을 발족하고서

먼저 남산의 안중근 동상과 김구 동상을 관리하는 안중근기념사업회와 백범기념사업회에 장소를 타진해 보았더니 담당자들은 어림없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 교섭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럴 적에 박원순은 종로 쪽을 알아보라고 귀뜸을 해주었고 문병학도 이 제의를 해왔다. 서울의 가장 중심지인 종로에 가능할까,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전봉준과 김덕명 손화중 최경선 성두한 등이 심문을 받고 재판을 받은 의금부 터와 권설재판소 터와 전옥서 터와 좌감옥 터가 있던 종로 일대를 답사했다. 마침 전옥서 터만 서울시유지였고 나머지 터는 모두 사유지임을 알아냈다.

그래서 이해 가을 동학농민혁명 전국기념대회를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가질 때 이이화 신영우 문병학 셋이 간단한 회합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결정했

다. 이어 신영우, 문병학,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기곤 회장, 최효섭 사무총장, 정남기 전 유족회장, 전해철 전봉준기념사업회 이사장, 천도교 주선원 감사원장 등과 임시 회합을 가지고 조직을 논의했다. 나는 기금을 모을 역량이 모자라고 또 책 쓸 계획도 있어서 대표 일을 맡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명망이 높은 인사를 물색해보라고 당부했다. 몇 사람은 회합을 끝내고 함께 전옥서 터를 답사했다.

신영우 문병학 전성준 등 관계자들은 한 동안 새 인물을 대표로 모시려고 한승헌 변호사를 비롯해 강만길 등 원로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모두 이이화가 하던 일이니 이이화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던 모양이다. 그리해 다시 나에게 강권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나는 소명이라고 여기면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실무를 맡을 인사로 유족회 전 사무국장으로 치밀하고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손주갑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봉준 양손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로 많은 도움을 준 전성준이 적극 참여했다. 이 사업은 활력이 넘쳤다.

그리하여 2017년 3월 22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지고 배항섭의 사회와 이기곤의 제의로 이이화를 이사로 추대하고 정관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과 유성엽 국회 문광위원장, 김상기 정읍시장, 박우정 고창군수 등과 정남기 등 유족들, 학계로는 임헌영 조광 윤경로 김정기 이애주 배경식 등 인사가 참석했다.

오후 2시에는 신영우 사회로 학술발표회를 가졌는데 이이화의 기조강연은 「전봉준의 심문전말과 처형과정」, 배항섭의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 왕현종의 「전봉준 장군의 정국 구상과 서울의 장소성」, 신영우의 「역사인물의 동상 제작과 전봉준 장군 동상」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첫 발표는 아주 진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 바탕 위에서 정식으로 이사회를 꾸리고 집행부로 사무국을 발족시켰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전원마을길 아늑한 곳에 마련했는데 전성준이 개인 사무실을 내준 것이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기본자산을 적립해야 했기에 전해철 전성준 손주갑 이이화가 각각 5백만 원씩 출연해서 마련했다. 이어 손주갑은 서둘러 서울시 문화정책과에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고 농협 종로 1가지점에서 국민모금 기금통장을 개설했다. 이사장 이이화 명의의 통장을 손주갑 전영준 세 사람이 받아들고 나자 기쁜 마음과 함께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꾸린 건립위원회 이사와 사무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이사 : 전해철 전성준 이기곤 주영채 전영한 신순철 이상면 김영진 진윤식
김정기 이종민

상임이사 : 신영우

감사 : 박용암 문명화

사무처 : 사무국장 손주갑, 대외협력본부장 하정우, 사무차장 전영준, 간사
오정은

고문 : 강만길 한승헌 김중배 김진배 이상식 이만열 박재승 김호진 임현영
박남수 박석무 진영일 김정현 서중석 안병욱 유홍준 이종우 임현백 김영호

이사와 고문은 우리 나름대로, 동상제작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명망
가를 선정하거나 추대했는데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고 단출하게 구성했다. 그리
고 업무추진의 능률을 위해 동상제작소위를 두고 정남기 김경기 이상면 신순
철 신영우를 위원으로 위촉했고, 기금모금소위를 두고 이기곤 신순철 문병학
전성준 신영우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보수는 규정에 따라 사무국 간사 1인에
게만 지급하고 다른 활동비는 최소한도로 지불하기로 했다. 법인 카드도 상임
이사와 사무국장 두 사람이 갖고 있으면서 필요경비를 쓰게 했다. 경비는 모금
액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지출하라는 규정을 지키려 한 것이다. 이렇게 조직을
갖추고 동상제작과 국민모금을 시작했다. 우리의 취지를 설명한 홈페이지도 개
설하고 국민모금을 알리는 홍보전단도 찍었다.

2. 동상 작가선정과 심사과정

상임이사 신영우는 전문가요 작가인 김정현 임옥상 등 여러 인사를 접촉해
여러 의견을 들었다. 그러면서 또 국내 국외의 동상 사례를 수집해 비교 검토
했다. 이어 신영우의 책임 아래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작가의 선정, 작품의 조
언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손주갑과 하정우는 서울시와 종로구청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
씩 절차를 밟아나갔다. 장소는 아직 정식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거의 전옥서 터
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달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작은 녹
지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천주교 순교터임을 표시한 표석이 세워져 있
었다. 그래서 나는 천주교 전공 학자인 조광과 신부로 민주운동가인 함세웅에
게 이를 옮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고 동의를 받았다. 두 분은 천주교
관계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서울시 문화정

책과에서 천주교 측 동의를 받아 먼저 그 표석을 앞쪽 길가로 옮겨주었다.

동상제작 작가의 공모는 서울시의 관련 조례를 참고해서 지침서를 만들었다. 모형작품 심사위원은 동상제작소위와 역사전공자로 구성하여 정남기 신순철 이상면 신영우 배항섭 이윤영 김양식 조재곤 이병규 등이 맡았다. 그리해 응모 작품을 검토한 끝에 충북대 명예교수인 김수현 작가를 선정했다. 김수현 작가는 원로로서 국내의 많은 동상을 예술적 감각과 역사성을 담아 제작해 명망이 높았다. 그리해 김수현 중심의 제작팀이 꾸려졌다.

신영우는 작가에게 전봉준의 삶과 죽음에 대한 역사 기록과 인간상에 관한 자료를 알려주고 토의를 거듭했다. 동상제작소위에서 여러 논의와 과정을 거쳐 동상 기본 모습은 입상이 아니라 좌상으로 만들기로 했고, 작가는 예술적 표현을 바탕으로 기본 구도를 설정했다. 작품 제작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 걸려야 하는데 우리 쪽 계획에 맞추느라 그 보다 훨씬 앞당겨 2018년 3-4월 제막을 목표로 제작에 열중했다. 게다가 우리 쪽의 모금액에 따라 제작비를 책정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동의해 주었다. 재능 기부인 셈이다.

작품의 기본 구도가 완성되어 진흙 형태가 완성되었을 무렵, 동상제작소위의 정남기 이상면 신순철 신영우가 작업실에 가서 보고 상투와 옷고름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서 수정했다. 이어 우리 관계자들 곧 이이화 신영우 전성준 전영준 등이 작업실에 가서 동상 모습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만족해했다.

서울시에서 새로 발족한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의 동상 높이를 낮추라는 의견을 참작했다. 좌대에는 전면에 원광대 교수인 여태명이 '녹두장군 전봉준'이라 쓴 동상 제목의 글씨를 새겼고 후면에는 간단한 동상 건립의 의의와 동시에 순국한 네 명의 이름을 적어 오석에 새겨 붙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봉준의 모습이다. 이 기본 구도는 전봉준이 재판을 받으려 법정에 나오면서 들것에 앉아 있는 사진의 모습을 잡았다. 상투 머리에 형형한 눈은 옆으로 종각 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두 손은 바닥을 짚고 있다. 얼굴의 살은 사진에 나타나는 모습이 약간 부기가 있다는 작가의 의견에 따라 조금 살을 줄인 모습이다. 이는 민중과 대화를 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잘못된 세상을 노려보며 웅장한 변설을 토해낼 듯한 모습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친근감을 주는 이미지이다.

아무튼 이 작품이 완성된 뒤 심사위원의 동의를 거쳐 정식으로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위원회는 심의를 벌인 끝에 위원 8명 중 5명 찬성,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조건부 통과했다. 그 허가 조건은, 동상 좌대의 높이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낮추고, 하면 좌대는 설치하지 말 것과 설치 장소 주변의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3개 이상의 유관 학술단체의 자문결과

를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그리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안병욱과 독립기념관 관장인 이준식,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승우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다. 설치 장소 주변의 이해관계인 동의는 하정우가 영풍빌딩을 찾아가서 받았다.

종로구청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종로에는 많은 역사 유적이 있는데 김영종 구청장은 종로를 역사문화도시로 가꾸는 사업을 벌여왔다. 더욱이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여서 전봉준 동상도 역사 유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김영종 구청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손주갑과 하정우는 녹지과장 등 관계자에게 그 의의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또 내가 쓴 『전봉준, 혁명의 기록』이라는 책을 기증해 그 의미를 새삼 일깨우기도 했다. 그리해 동상 부지를 평탄하게 만들고 화단에 석물을 두르는 등 정비를 해주었다. 아주 자연스레 협조와 지원이 따랐다.

2018년 4월 24일 전봉준 등 다섯 분이 순국한 날 오전 11시에 제막식을 거행했다. 사전 행사로 김연 이정인 모녀가 전봉준을 주제로 신작 판소리를 공연하고, 종로구청 풍물패가 사물놀이를 공연했다. 본 행사에는 이이화 이사장의 인사말, 정세균 국회의장, 시민대표로 변호사 한승헌, 연구자이면서 국회의원인 강창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지선 그리고 서울시장인 박원순의 축사가 있었다. 참석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승우, 천도교 교령 이정희,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종로구청장 김영종, 전 전국농민회장 배종렬, 조계종 대종사 원경, 변호사 박재승, 시민운동가 권오현,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인 임추섭, 아시아문화컴뮤니티 대표인 정진백, 조선대 교수인 이종범,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인 안병욱, 독립기념관 관장인 이준식, 서울역사박물관 관장인 주진오,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인 서중석, 전 역사비평 대표인 장두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인 임현진, 원광대 이사장인 신순철, 경북대 명예교수인 이정우, 전 제주교육대총장인 김정기,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인 김학민, 전 수원화성박물관장인 이달호, 사월혁명회회장인 정동익,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인 전진우, 조계종 인권운동가인 진관,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인 김대곤, 민주운동가요 서문교회 목사인 박원홍, 전 민교협 의장인 유초하, 판소리 전문가인 임진택,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인 조세열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유족과 동학농민혁명연구자, 시민 등 6백여 명이 참석했다. 종각 뒤편에 있는 식당에서 베풀어진 뒤편이에도 약자지꼴 2백여 명이 함께 잔치를 벌였다. 여러 언론 매체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온통 종로에서 벌어진 축제였다.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이 이를 굽어보았을까?

현재 전봉준 동상은 예전 만민공동회 집회, 3.1운동 시기 만세시위, 4.19혁명 시기 학생시위, 근래에는 6월항쟁과 촛불시위가 벌어졌던 현장에 하나의 민족 - 민주의 상징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해 국민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청소년의 민주의식 함양의 교육장이 되고 있다. 하나의 보기를 들면, 독일 유학생들 사이에는 동상 앞에 막걸리를 가득 부은 잔을 놓고 추모하는 합성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한다.

동상이 건립된 뒤 전공학자들과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첫째 좌상으로 세우고 얼굴을 돌려 쳐다 보며 눈빛이 광채를 띠고 있어서 독창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했다. 둘째 흔히 높은 입상을 세우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따위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방법을 지양하고 대화하는 자세가 민주사회의 상징으로 걸맞다는 평가가 있었다. 셋째 역사성이 있는 종로 1가에 세워 광화문과 보신각 사이에 위치해서 시민의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와 달리 투사의 기상이 모자라고 권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꾸지람도 있었지만 아주 소수였다. 왜 용감하게 전투하는 장면을 보이지 않고 끌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냐는 말도 있다.

또 장소의 연관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본신문에 좌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했다고 했으니 전옥서 터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 이순신은 광화문과 무슨 연고가 있는가, 김구와 안중근은 남산과 무슨 연고가 있는가? 말을 만들어내려는 꼬투리 잡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좌감옥 터를 매입해야 한다면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감안하지 않는 단순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하겠다.

아직도 후원자 명단 표시, 외국어 소개 표식 등 후속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동상 관련의 자세한 내용은 신영우교수 발표논문 참고할 것)

3. 국민모금운동을 벌이다

우리 전봉준동상건립위원회는 목적 사업인 동상을 세울 국민모금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았다. 우선 국민모금 목표액을 최소한도 액수인 3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액수도, 민주화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느슨해져, 쉽게 달성되지 않을 것 같았다. 또 우리 구성원들이 이런 일에는 익숙하지 못한 인사들이었다.

그 방법을 놓고 우리 내부에서 논의를 거듭했다. 첫째 방법으로는 전국적인 추진 기구를 두어 언론매체에 취지를 설명한 광고를 내고 모금을 진행하는 것

이다. 여기에는 막대한 광고비가 들어가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결함이 지적되었다. 둘째 특정 언론매체와 손을 잡고 모금하는 전통적 방법이 논의되었다. 예전 민족문제연구소에 친일파인명사전을 제작할 때 이 방법을 써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시대 사정이 달라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우리 위원회의 관계자들과 기념사업 단체와 유족회 그리고 민주운동 인사들이, 개별 단체나 시민 개개인에 파고드는 홍보사업 또는 ‘두더지작전’을 벌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 합의를 했다. 그리해 세 번째 방법을 통해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모금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시작해 만 1년으로 잡았다.

그래서 먼저 가족과 친지 동창 등 개인 접촉을 벌였다. 전성준 손주갑 신영우 정남기 이이화 등 구성원들은 가족과 친지, 동창을 모금 후원자 명단에 올려 몇 만원에서 몇십 만 원 단위로 내게 했다. 이어 이들이 또 점 조직처럼 친지들에게 후원을 권유하는 방법을 썼다. 전해철과 전성준은 천안전씨 문효공 파종친회와 전봉준기념사업회 회원에 접촉해 많은 호응을 받아냈다. 그들은 전봉준 정신을 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이화 왕현종 이상면 등은 국민모금의 의의를 알리는 인터뷰와 글을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경인방송, 위클리 서울, 주간경향 그리고 미주신문 등 매체에 실었다. 이를 계기로 인터넷에서도 이를 알리는 단편적인 기사가 나갔다. 그런데 이른 바 거대 언론이라는 매체에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다음 이이화 신영우 전영준이 2017년 여름과 가을에 들어서 지방순회 설명회를 가졌다. 먼저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김생기 시장과 동학농민혁명 유족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단체 대표 등 수백 명의 인사 앞에서 이이화는 동상 건립의 의의를 설명하고, 신영우는 동상제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읍 시민의 호응이 컸고 김생기 시장도 열의를 보여주었다. 이를 계기로 정읍에서는 전체 시의원들이 일률로 10만원씩 모금에 동참해 주었다. 이어 마을 단위와 각급학교와 단위 조합 등에서 모금을 해서 보내주었다.

다음 먼저 전주에 들려 신순철 이종민 등 건립위원회 이사들과 함께 전주시장과 전북교육감을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저녁 한옥마을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안득수 서지영 함운호 김양운 조정임 신순철 등 10여 명이 참석해 모금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광주에 가서는 임추섭 이상식 김길 이종범 정진백 김후식 김상운 정대하 윤태원 등 광주지역 시민운동가 교수 기자 등과 회합해 국민모금 방법을 상의했다. 이어 무안으로 가서는 배종렬 고석규 박석면 등과 회합해 농민 또는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기로 뜻

을 맞추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강진 순천으로 가서 홍동현 다산실학연구원 연구원, 홍영기 순천대 교수, 박주권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장 등을 만났다.

특히 배종렬은 평생 농민운동을 하면서 쌓은 인맥을 동원해 노익장다운 활동을 보여 주었다. 그는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 한국농산물유통공사(사장 이병오) 농협중앙회 전국농민총연맹 등에 전화로나 직접 만나서 설득을 했다. 또 광주의 임추섭은 평생 교육운동 또는 진보 정당운동을 펼치면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후배인 정진백과 함께 광주 중심으로 모금 활동을 벌였다. 우리는 임추섭을 국민모금 광주-전남공동대표로 추대했다. 두 분의 노고는 참으로 컸었다.

그런 뒤 광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후식 회장의 주선으로 회원을 모아 설명회를 가졌으며 광산구청에서는 정대하 기자의 주선으로 민형배 구청장이 적극 찬동해, 수백 명의 시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다. 현장에서 모금을 하기도 하고 구청에서 모금을 해서 보내주기도 했다. 이어 최경석의 주선으로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이곳 동학농민유족과 농민회 회원 등이 참석해 모금에 동참해 주었다. 다음 대구에서는 이정우의 주선으로 대구의 '지식과 세상' 사회적 협동조합 강당에서 정지창 김병화 오홍석 등 대구 지역 교수와 민주운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회를 가져 동참을 이끌었다. 마지막 서울 중심으로 고창 익산 강진 태안 예산 수원 고양 대전 강릉 김해 등지에서도 호응이 있었다. 이 정도면 전국적 의미를 띠게 된다고 판단되었다.

또 동학농민혁명 연구자인 기념재단의 문병학 이병규와 배항섭 왕현종 김양식 등은 후원금 출연은 물론 뒤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전봉준의 중심 활동지역인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교육청에서는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과 부산 진주 상주 등 영남지역에 연결 통로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우리 일행은 교통편도 전성준이 개인 승용차를 제공해 주는 등으로 활동비를 아꼈다. 현지에서는 관계자들이 개인 또는 단체 부담으로 맛있는 향토 음식과 술을 사주기도 했고 숙박비를 내주기도 했다. 이에는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 성원해 준 뜻이 있었다. 신영우가 지니고 있던 법인카드는 '주머니' 속에서 잠자기 일쑤였다.

그 다음 우리는 국민모금에 찬동할 시민단체를 방문했다. 국민모금의 취지문과 『전봉준, 혁명의 기록』 책을 전달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적극 호응해 준 민주운동단체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선) 4.1혁명회(정동익) 5.18기념재단(김후식) 5.18민주화부상자회(김후식) 5.18민족통일학교(오종렬) 대한민국임

시정부기념사업회(김자동)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회(박남수) 민청학련계승사업회(이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승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이기곤) 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종민) 공주우금치기념사업회(지수걸)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문형식)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김창남) 전봉준기념사업회(전해철)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진윤식) 전국농민총연맹(김용호) 장흥농민회(김명기) 대구사회적협동조합(이정우) 통일을여는사람들(윤주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한홍구) 원광학원(신순철) 흥사단(류종열)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이종찬) 야산이달선생기념사업회(이응국) 윤상원기념사업회(김상윤) 금정굴인권평화재단(이이화)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유족회(김태년)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태안유족회(정석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최금숙) 민주시민네트워크(전진우) 강진다산동우회 등이다.

한편 정읍에서는 시청과 시의회, 문화원, 교육청, 재경동창회, 광주에서는 교육청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YMCA 등이 참여했다. 두 지역에서는 이밖에도 여러 단체와 기관이 동참해 주었다. 이들 단체 기본 회비는 10만원에서 1백만 원이었는데 어렵게 후원금을 마련해 주었다.

학술문화단체로는 역사문제연구소(서중석) 민족문제연구소(임헌영) 동학학회(최민자) 정읍역사문화연구소(김재영) 정읍문화사랑(김종호) 강진다산실학연구원(홍동현) 동방문화진흥원(이응문) 경허연구소(송현지) 등이 후원했으며 학술문화계 개인자격으로 한국중앙연구원장 안병욱,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광, 독립기념관 관장 이준식 등이 후원했다. 또 국책회사로는 한국농어촌공사(최규성), 한국농산물유통공사(이병오),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김경재), 한국산림조합중앙회(이석형), 전남서남부채소농협 등이 후원했고, 개인회사로는 통우인터내셔널주식회사(조보현) 주)와이엔케이투게더 등에서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내주었다. 무엇보다 이들 단체에서는 이사장, 상무이사 등 임원들이 개인의 돈으로 개인 후원금을 냈으며 조직 내 인원들에게도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내게 독려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참여도 있었다. 국회의장 정세균을 비롯해 강창일 이종걸 송영길 김두관 천정배 주승용 유성엽 이춘석 이개호 원혜영 최경환 그리고 전의원인 윤철상 등이 1백만 원을 기준으로 해 모금에 참여했다. 강창일 의원은 연구자로 전봉준 관련 기사가 나오는 일본 신문 잡지를 복사해 전달해 주었고 특별법 재단설립을 규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었으며, 윤철상 의원은 국회에 국회의원 중심의 모임을 꾸리고 특별법을 국회에 통과시켰고, 유성엽 의원은 국무총리를 심의위원장으로 한 규정을 문광부장관으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아직도 합의를 못본 기념일 지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판사로 교유서가(신정민), 사파리(유성권), 부산 인디고(허아람) 역사비평사(정순구), 풀빛미디어(나힘찬), 생각정원(박재호) 우리교육(신명철) 등이 참여했고 종교단체로는 천도교중앙회(이정희) 원불교정덕문화원(이선종) 천주교정의사제단(함세웅)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강주석) 서문교회(박원홍) 부산불교문화연구원(김광호) 평택 만기사(원경) 해남 성불사(황혜당) 용화사(송양순) 등, 학교법인으로는 원광학원과 그 산하의 여러 학교법인이 참여했고 원광학원 이사들도 모두 동참했으며 정읍의 몇몇 초등학교와 서울의 대진여고, 담양의 한빛고, 서울의 '꿈의숲' 기독교혁신학교 등의 학생들이 호응해 주었다.

한편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려고 스토리 펀딩을 통해 모금을 시도했다. 생각정원 박재호의 지원을 받아 이응일이 이 일을 맡아 열성을 다해 진행했는데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와 일반시민의 호응이 컸었다. 그 액수는 몇 백원에서 몇 10만원 단위로 총 1천만 원 정도 모았으나 참여범위를 넓혔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며 많은 시민에게 그 의의를 알려준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교수와 학자들이 동참해 주었다. 그 명단을 보면, 강만길 윤경로 조민 추교순 남금자 송찬섭 남지대 한정숙 정진영 조재곤 허수 이지원 김정인 장정룡 정근식 한상권 양보경 유승원 장병인 김시업 임형택 정진상 허영란 홍영기 홍윤기 임채우 이광호 김준혁 이정우 정지창 김병하 임현진 임형진 최민자 이용기 정태현 김성보 지수걸 윤용출 채상식 홍순권 등이다. 개인 자격으로는 박원홍 이상희 정찬용 윤태원 남규선 이해학 김백일 전만길 박중기 최사묵 이문옥 장두환 이계성 김학민 이달호 김정란 장병화 장태학 박재승 안득수 서지영 박상용 정대하 채영복 봉경식 오윤이 황진섭 하광용 주영채 김동철 김현철 김재영 유덕기 김미경 정시흥 최향자 조정임 그리고 법무법인 더펌 등이 여러 모로 도움을 주었다.(이상 국민모금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DAUM WWW, 전봉준동상건립위원회 국민모금후원자 명단을 참고할 것)

여기에서 재미있는 얘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기로 한다. 최고원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김제 동학농민군 기념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최순식 선생이다. 최순식 선생은 평생 동안 김제 일대의 동학농민군 유적을 찾아내 우리 연구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원평에 무명 동학농민군 추모시설을 만들기도 했다. 전봉준 동상을 서울에 건립하면 그분이 너무나 기뻐할 것 같아 건립기금을 딸이 낸 것이다. 이게 유일하게 사자(死者)가 낸 국민모금이다.

또 하나, 전봉준을 흠모하는 김판수는 뜨거운 여름날, 전봉준의 유시(遺詩)를 적은 팻말을 들고 동상 건립 자리를 맴돌면서 시민을 상대로 전봉준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모금활동을 벌였다. 그의 이런 열성에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이 기금을 서슴없이 내주어 화제를 모았다.

목포에 사는 이이억은 폐지를 모아 팔아서 전액을 동상 기금으로 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식당업을 하는 손수호는 기금을 보내주고 사무국으로 찾아와 선물과 함께 수고한다고 밥을 사주기도 했다.

한편 전봉준 재판에 재판관으로 활동했다가 뒤에 민족운동에 참여한 서광범의 증손자인 서계원이 이상면의 안내로, 예전 조상의 인연을 생각하고 두 지도자가 다 같이 애국애족의 선열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금을 보내주었다. 이는 해원 상생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동상 제막식이 끝난 뒤 다음 날 고창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해마다 수여하는 녹두대상을 우리 위원회에 수여해 상금 1천만 원을 기금에 보냈다. 그리해 기본 자산을 제외한 모금 총액은 2억 7천여만 원을 헤아렸으며 여기에 2천여 명이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널리 있는 동상은 거의 특정 단체의 지원이나 국가 예산을 투입해 건립했다. 국가예산이나 대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한 국민모금을 통해 이룩한 동상은 전봉준 동상의 경우가 유일할 것이다. 이는 민족-민중 지도자의 이미지와 걸맞을 것이다. 다만 홍보수단이 원활하지 못해서 널리 알리지 못한 한계를 지녔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밝혀줄 얘기가 있다. 이 국민모금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우리 사무국 일꾼과 관계자들의 봉사 덕분일 것이다. 정해준 활동비도 쓰지 않고 거의 자비로 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무국장 손주갑은 정읍의 인맥을 총동원하면서 큰 역할을 해냈다.

4. 앞으로 기념사업 계획과 전봉준연구소 구상

나머지 후속작업은 이번의 학술대회를 비롯해 동상제작 경과를 담은 보고서 간행, 서울시와 종로구청 등과 협력하는 동상 관리 일이 진행될 것이다. 소요경비는 국민모금의 남은 금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전봉준에 관련된 연구서 발행과 대중화 작업 등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일을 추진케 위해 연구소를 발족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구소의 이름은 <전봉준연구소>로 생각하고 있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한 구상도 하고 있다. 먼저 연구비와 경상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 기념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다른 관련단체와 협력관계를 이룩해야 할 것이며, 전공학자의 저술을 간행해 그 실적을 내야 할 것이다. 대중을 위한 교양서를 잘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 예산이 필

요하므로 서울시나 국가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소에는 전공연구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이후에도 계속된 기본 사료를 찾는 일을 추진해 갈 것이다.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사료들인 가전 일기와 문서로 남아 있다. 또 중국과 일본에서 관련 사료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를 확보해서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료를 발굴하면 이를 분석해서 해제를 쓰고, 당시 일어난 많은 사건을 밝혀내는 실증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배경을 국내와 국제정세 속에서 파악하고,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삼국이 변혁운동을 통해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일본뿐 아니라 청국이 개입을 하였고, 인천항에 들어온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등 군함도 주시하고 있었다.

마지막 여담삼아 한 가지 얘기를 늘어놓아 본다. 독일에서는 전후에 '홀로코스트' 추모사업을 펼치면서 '홀로코스트' 추모공원과 추모비를 곳곳에 세웠다. 그런 다음에 베를린의 마을과 거리와 집 앞에 '걸림돌'을 걸어두는 운동을 벌였다. 여기에는 나치시절 학살된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종교인, 장애인의 이름, 출생년도, 사망 장소 등이 새겨져 있다. 현재 베를린 시내에 7,618개가 걸려 있고 유럽 전역에 있는 걸 합하면 2016년 기준, 6만여 개가 흩어져 있다. 이는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온 뒤, 조일전쟁(임진왜란)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학살을 당한 경우가 동학농민전쟁 시기이다. 30만 명쯤 죽었다고도 하고 10만 명쯤 죽었다고도 하지만 통계를 낼 수가 없다. 이들 희생자들은, 거의 하급 구실아치와 무지렁이 농사꾼과 노예인 사내종-계집종과 백정인 도한(屠漢)과 유랑민과 거지들이었다. 이런 부류를 점잖은 학술용어로는 무명농민군이라 부른다. 우리에게도 독일의 '걸림돌'이 '타산의 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튼 우리는, 근대 민족-민중운동의 상징인 전봉준 동상 건립을 계기로, 새로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봉건모순을 청산하려 항쟁한 동학농민혁명, 식민지 강압 통치에 항거하고 자주독립을 외친 3.1운동,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투쟁을 벌인 4.19혁명, 반유신 반군부독재의 청산운동에 희생을 치른 5.18민주항쟁과 6월민주항쟁,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철폐하여 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촛불시민혁명의 의미를 바르게 평가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남북분단이라는 민족모순의 구조 아래에서 민족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음을 새겨야 할 것이다.

전봉준 장군 동상 제작과정의 고증 문제

신 영 우(충북대)

< 目 次 >

1. 머리말
2. 전봉준 동상 작가의 공모와 주요 검토사항
3. 전봉준 동상 제작의 참고 자료
4. 동상 제작과정의 고증과 좌상 결정
5. 맺는 말

1. 머리말

종로 네거리에 전봉준 동상을 건립하는 사업은 그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다. 전봉준은 한국사에서 전근대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시기에 변혁운동을 펼친 개혁운동가인 동시에 외세 침략에 직면해서 농민세력을 결집하여 이에 항쟁을 벌인 군사지도자였다.

전국에 걸쳐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이 주력인 진압군에게 패배한 후 붙잡힌 전봉준과 주요 지도자는 종로 네거리의 전옥서에 갇혀 있다가 길 건너 권설재판소로 가서 재판을 받고 바로 효수되었다.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오래 동안 병란을 일으킨 수괴와 이를 추종한 비적으로 매도되었다. 지금은 학술 연구의 성과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명예가 회복되었지만 아직 '동학란'으로 역사 교육을 받은 후유증은 일정하게 남아있다.

역사의 현장을 찾아 전옥서 터에 세운 전봉준 동상은 개인 차원을 넘어 그의 동지들을 함께 표현한 동상이다. 동시에 당시 희생자와 생존 동학농민군들의 분투하고 노력한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는 동상이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명예회복을 상징하면서 미래의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상이기도 하다.

현재 조선왕조 정궁인 경복궁 앞의 세종로에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다. 광화문 네거리의 이순신 동상은 정부의 산하 단체였던 애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¹⁾와 서울신문사의 공동주관으로 1968년 4월 27일 건립하였다. 이순신 동상은 전체 높이 17m(동상 6.5m, 기단 10.5m)의 입상 형태이다.

서울시가 2009년에 건립한 세종로의 세종대왕 동상은 높이 6.2m, 폭 4.3m 규모로 기단 위 의자에 앉아있는 좌상이다. 이 동상은 단일 조형물이 아니라 지하에 설치한 역사박물관 공간인 '세종이야기', 그리고 지상에 혼천의와 측우기 등 여러 구조물과 함께 세운 종합 조형물이다.

전봉준 동상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두 블록 떨어진 장소에 세워졌다.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에 비교하면 여러 가지가 다르다. 첫째 최초로 건립 비용을 국민모금으로 확보한 것이다. 둘째는 좌대 1.3m와 동상 1.5m로 이순신과 세종대왕 동상에 비해 현격하게 작은 것이다. 셋째 의자에 앉지 않은 좌상으로 두 손은 땅을 짚고 있는 동상이다. 전봉준 동상은 앞에서 보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있다.

종로 네거리의 전봉준 동상은 사진 자료를 토대로 작가의 창의를 더해져서 재창조된 동상이다. 사진은 중요한 자료였지만 동학농민혁명 사료와 이 동상을 제작하는 과정, 즉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고심했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전봉준 동상 작가의 공모와 주요 검토사항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해 사전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저술²⁾을 검토하였고, 주요 논문을 살펴보았다.³⁾ 정치권력이 추진한 위인 동상 만들기를 비판한 글도 검토하였다.⁴⁾

다음으로 국내 여러 동상을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⁵⁾ 우선 서울에 세운 위인 동상을 찾아서 조사하였다. 국민 모두 늘 보고 있는 세종로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포함해서 그 수가 적지 않았다.

남산과 장충단 공원에 있는 동상에 한정해서 본다면, 동상의 형태는 대개 입

1)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가 만든 15기의 동상 목록은 다음과 같다. 1968년 충무공 이순신, 세종대왕, 사명대사 유정. 1969년 을곡 이이, 원효대사, 김유신 장군, 을지문덕 장군. 1970년 유관순, 신사임당, 정몽주,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1972년 강감찬 장군, 김대건, 윤봉길 의사.

2) 조은정, 『동상 - 한국 근현대 인체조각의 존재방식』, 다홍미디어, 2016; 조은정, 『조각감상법』, 대원사, 2008.

3) 김인환, 「한국 현대조각의 형성과 전개」 『미술세계』 1986년 4월호; 김영나, 「한국 근대 조각의 흐름과 성격」 『미술사학』 8, 1994; 박계리, 「충무공 동상과 국가이데올로기」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2, 2004; 조은정, 「한국근현대조각연구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 2012.

4) 은정태, 「박정희시대 성역화 사업의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15호, 2005; 전우용, 「서울의 기념인물과 장소의 역사성: 가로명 및 공공부지 조형물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제25호, 2005; 정호기, 「박정희 시대 동상건립운동과 애국주의」 『정신문화연구』 106호, 2007.

5) 조은정, 「한국현대 기념인물상의 전개」 『미술세계』 2016. 01; 편집부 편, 「서울의 기념인물상 이모저모」 『미술세계』 2016. 01.

상(立像)이었고, 일부는 좌상이었다. 남산의 김구 동상과 안중근 동상 그리고 정약용 동상과 이항 동상은 입상이었다. 이시영 동상은 좌상으로 건립되었는데 동상 높이 2.7m, 좌대 높이 4.3m로 그 크기는 7m나 된다. 좌상이라고 해도 그 크기는 입상에 못지 않았다. 전근대의 장군은 기마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김유신 동상은 기마상이었다. 장충단공원의 이준 동상, 사명대사 동상, 유관순 동상은 모두 입상이다.

종로에는 종묘 시민광장에 이상재 동상이 있고, 탑골공원에는 손병희 동상이 있다. 그리고 조계사와 연합뉴스 건물 사이의 수송공원에는 1.7m의 좌대 위에 3m 높이의 이종일 동상이 있다. 모두 입상이다. 독특한 동상이 종로 5가에 있는 전태일 동상이다. 청계천의 버들다리 위에 설치된 전태일 동상은 반신상 형태이다.

동상 표현은 다양하다. 남산공원 백범광장의 김구 동상은 오른손을 들고 있고, 양재 시민의 숲에 있는 윤봉길 동상은 오른 손을 더욱 높게 들고 있다. 남산의 안중근 동상은 태극기를 막 꺼내든 모습으로 조각되었다. 이상재 동상과 같이 손을 들지 않은 채 양팔을 내린 모습으로 표현하면 역동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 동상에는 뒤쪽에 날개와 같은 벽을 두고 거기에 부조를 새겼다. 주요 업적이나 일생의 활동 등을 몇 개의 장면으로 양각하거나 음각하여 표현하였다.

처음 전봉준 동상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가지 항목을 주요 검토 문제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좌대에 관한 것이다.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와 좌대의 크기와 높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사전조사한 동상은 대개 좌대가 우람하게 보이는 크기가 많았다.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좌대의 부피가 작게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좌대는 꽤 큰 형태였다.

다음으로는 동상의 크기와 높이였다. 사람 크기로 만들면 동상이 너무 작게 보여 왜소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적어도 실물의 1.5배나 2배 정도가 되어야 보기가 좋아진다. 작아 보이는 동상도 실제로 대보면 아주 큰 것을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동상의 표현이었다. 손의 위치와 의복, 입상과 좌상, 군상 여부 등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① 두 손의 위치(올린 모습, 또는 내린 모습)
- ② 무기 또는 선언서를 든 모습

- ③ 상투 차림 또는 갓을 쓴 모습
- ④ 두루마기
- ⑤ 선 모습 또는 앉은 모습
- ⑥ 전봉준 1인 동상, 또는 전봉준과 동지상
- ⑦ 함께 형을 받은 5인 지도자 동상(전봉준과 성두한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이와 더불어 부조를 만들 것인지, 만들지 않을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전봉준 동상의 부조를 만든다면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전봉준이 참여한 가장 중요한 전투인 우금치전투를 새길 것인지, 아니면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을 새길 것인지, 또 수많은 무명농민군을 새길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전제를 가지고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동상제작소위는 제한공모로 동상 제작을 맡을 작가를 선정할 때 지침서를 만들고 공모에 참여한 작가에게 전달했다. 동상의 표현문제도 설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사단법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협조 하에 전봉준 장군의 순국 터인 서울 종로구 보신각 맞은편에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고자 한다.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은 1894년 12월 28일 체포당한 후 1895년 4월 19일 보신각 건너편에 위치한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근대사법제도 출범 후 최초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1895년 4월 23일 인근 전옥서에서 교수형을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장소에 건립하는 전봉준 장군 동상은 그 역사적 위상에 걸맞게 창의적이면서 역사성과 예술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야 하며, 동시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한공모 참여자들에게 작품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 작품 제작방향

가. 작가의 창작의도를 중시하되 아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전봉준 장군의 사진에 나타난 눈빛과 인물을 잘 표현한 창작품
- 2) 설치장소의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기단과 동상 작품
- 3)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형성과 역사성 그리고 예술성이 표현되는 작품

나. 야외환경에서 건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한다.

다. 동상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1) 설치장소의 특수성에 따른 작품의 총중량과 구조의 안전성

2) 건립 현장의 주변 사정을 고려해서 환경친화성을 반영

라. 별첨한 관련 조례의 해당 규정을 충분히 숙지 검토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2)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6. 당선자의 권리와 의무

가. 당선자에게는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하여 작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나. 본 지침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동상제작소위'에서 결정한다.

7. 당선자와 동상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

가. 당선작 선정 후 사단법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 후 1주일 이내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다.

다. 제작 완료한 동상은 2018년 3월 20일 이전까지 설치 완료한다.

라. 동상의 설치완료와 함께 2년간의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다.

마. 동상 설치완료 후 동상에 관한 권리는 사단법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에 귀속된다.

3. 전봉준 동상 제작의 참고 자료

동상제작소위는 공모에 참가한 작가들에게 전봉준 장군 관련 사료를 제공하였다. 먼저 동상 설치 현장에서 작가를 한분 한분 만나서 장소의 역사성을 설명하고, 전옥서와 의금부 그리고 권설재판소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어서 1894년과 1895년 일본군이 들어와 경복궁을 장악하고 용산과 만리동에 주둔했던 서울의 상황과 종로의 사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사진을 찍은 과정을 조사한 연구논문을 비롯해서 전봉준 관련 논문,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사용했던 깃발과 일본신문에 나온 그림 등 여러 가지이다. 동상 구상에 도움이 될 번역된 사료도 제공하였다. 응모작가들은 이를 토대로 모형작품을 제작해서 제출하였고, 동상제작소위와 연구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동상 제작 작가로 김수현 교수를 선정하였다.

김수현 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동상 제작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2. 작품 제작방향

- 1) 전봉준 장군 사진의 눈빛과 인물을 잘 표현한 창작품
- 2) 설치장소의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기단과 동상 작품
- 3) 쉽게 이해되는 조형성과 역사성, 예술성으로 표현된 작품
- 4) 내구성이 강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한 작품
- 5) 기존 전봉준 장군 동상과 지나치게 유사하지 않은 작품

3. 작품 제작 조건

- 1) 사단법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는 제작에 필요한 사진과 자료를 작가에게 제공해야 한다.
- 2) 작가는 모든 성의를 다해서 약정 기간 안에 동상을 제작하여 설치장소에 건립해야 한다.
- 3) 작가는 공모시 제출한 작품 규격에 따라 제작해야 하나 규격과 무게와 형태를 변경할 때는 사단법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의 '동상제작소위원회'와 합의한 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4) 주변 부속물, 받침대 등과 부조 글씨와 문양 등에 관한 부분은 '동상제작소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5) 작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숙지해서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
- 6) 사단법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가 동상제작 과정을 참관하고자 할 때에는 작가는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전봉준 동상의 제작에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라카미 텐신(村上天真)이 찍은사진이었다.⁶⁾ 2장의 사진은 모두 1895년 2월 27일에 일본영사관 구내에서 찍은 것이다. 나라여자대학의 김문자는 「전봉준의 사진과 무라카미 텐신- 동학지도자를 촬영한 일본인 사진사」란 논문에서 사진을 찍은 경위를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수괴 전봉준(全捧準), 최경선(崔慶善), 손화중(孫化仲)을 비롯한, 그 외 6명은 일본병이 호송해 와서 우리나라 영사(일본영사 : 주)에게 일단 취조를 받은 다음, 지난 27일 법무대신에게 인도되었다. 수괴 전봉준 및 최경선 두 사람은 발에 중상을 입어 신체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영사

6) 김문자, 「전봉준의 사진과 무라카미 텐신(村上天真)- 동학지도자를 촬영한 일본인 사진사」 『한국사연구』 154, 2011.

는 의사를 초치하여 정중하게 치료하도록 했으며, 법무아문으로부터 회송해 온 들 것에 태워 호송했다.

나는 미리 그들에 대한 촬영 건을 미리 영사에게 조회(照會)를 해 두었기 때문에, 즉각 달려가서 그 같은 사실을 봉준 등에게 알렸더니, 그들 얼굴 가득히 희열을 보이면서 들 것 그대로 찍겠는가 라고 물으면서 스스로 명을 내려 일산을 치우게 했다. 그러나 촬영하는 동안에도 다친 곳이 아픈 모습이었다.”(「메사마시신문」)

“세 사람이 영사관 내의 철창에서 신음하는 동학당 대거괴 전봉준을 보았다. (중략) 그는 총검 때문에 발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안색과 팔다리도 창백하였으며, 숨도 거칠어 몹시 위독한 병증이었지만 그 기력은 상당히 강건한 듯하였다. 나이 37~8세, 그 용모는 보통사람과 다르지 않았으나 수염이 약간 있고 안광(眼光)은 날카로우며, 눈썹 위에는 겹쳐진 일종의 잔주름이 있어 이마를 횡단하고 있는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였다. 그는 기꺼이 사진촬영을 하고 그로부터 바로 가마를 타고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법무아문에 인도하기 위해 영사관을 떠났다.” (「오사카매일신문(大阪毎日新聞)」 1895년 3월 12일)

여기서 알 수 있는 전봉준의 얼굴 특색은 다음 다섯 가지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① 수염이 약간 있다. ② 안광(眼光)이 날카롭다. ③ 눈썹 위에는 겹쳐진 잔주름이 있다. ④ 잔주름이 이마를 횡단하고 있다. ⑤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 항목은 동상 제작에 중요한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다.

전봉준은 당시 아픈 상태였다. ① 발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② 안색과 팔다리가 창백하였다. ③ 숨도 거칠어 몹시 위독한 병증이였다. 이 기술 내용은 사진을 판독하는 재료가 되었다.

이 사진은 매우 아팠던 상태가 지난 다음에 찍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그 사정을 알 수 있는 기사가 실렸다. 일본영사관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아서 나아졌기 때문에 법무아문으로 이송시킨다는 내용이다.

“동학당 대거괴 전봉준은 아직 일본영사관에 구치(拘置)되어 병을 요양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는 쾌복(快復)의 전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법무아문으로 인도할 것이라 한다.”

동상제작소위의 자료 제공 의무와 함께 계약서에 명기한 몇 가지 항목이 있었다. 그것은 1) 전봉준 장군 사진의 눈빛과 인물을 잘 표현한 창작품, 2) 설치장소의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기단과 동상 작품, 3) 쉽게 이해되는 조형성과 역사성, 예술성으로 표현된 작품 등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전봉준 사진을 토대로 창의성 있는 작품 제작을 희망이었다. 또 주변과 어울리는 좌대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해주도록 요청하였다.

4. 동상 제작과정의 고증과 좌상 결정

선정된 공모작품은 전봉준 장군의 얼굴을 정밀하게 표현한 입상(立像)이었다. 입상 형태로 제작할 경우 다른 전봉준 동상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 동상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가 다시 나올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전봉준 장군이 맨상투에 두루마기를 입은 형태로 조각한 것을 평가했던 문제였다.

전봉준 장군이 아무것도 두르거나 쓰지 아니한 상투에 두루마기를 입은 것으로 표현한 기존 동상은 어색하다는 말은 그동안 많이 나왔다. 맨상투는 죄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두루마기는 양반이 입는 옷차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갓을 쓴 모습으로 만든다면 ‘갓 쓴 양반’만 보이지 녹두장군 전봉준의 모습은 사라진다. 실제로 갓 쓴 양반으로 표현한 동상에서 인물은 보이지 않고 갓만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두루마기는 조선사회에서 양반이 집에 있을 때에도 입는 옷이었고, 외출할 때는 위에 중치막이나 도포를 입었다고 한다. 1884년(고종 21)에 복제를 개혁하여 웃옷인 창익나 도포, 중치막 등을 입지 못하도록 하자⁷⁾ 두루마기가 웃옷으로 유행하였다. 전봉준은 양반 신분이기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주장이었다. 고증이 되지 않는 옷차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좌대의 높이에 관해서도 의견이 다양했다. 높은 좌대 위에 서서 수많은 동학농민군을 지휘했던 장군으로서 위상이 드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7) 『비변사등록』 1884년 윤 5월 25일. “전교하기를, ‘의복의 제도는 변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통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조례(朝禮)와 제례(祭禮) 및 상례(喪禮) 때의 의복은 모두 선성(先聖)의 유제이니 이것은 변통할 수 없는 것이다. 때에 따라 알맞게 만들어 입는 사복(私服)은 힘써 그 편한 것을 따르니 이것은 변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복으로 예컨대 도포(道袍)·직령(直領)·창익(裳衣)·중의(中衣)의 겹겹이 넓은 소매는 주선하는 데 불편하고, 옛것에서 찾아보아도 너무 차이가 난다. 지금부터는 좀 변통하여 단지 착수의(窄袖衣)와 전복(戰服)과 사대(絲帶)를 착용하여 간편함을 따르는 것을 정식으로 삼을 것이니 해조(該曹)에서 절목(節目)을 갖추어 들이게 하라.’ 하였다.”

와 반대로 최근 동상 건립 추세는 낮게 만들어 보는 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보내서 동상제작소위와 전공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 머리 모습 ① 종로에 세우는 동상은 사진 그대로 상투 모습이 적합하다. () ② 당시의 의관 풍습에 따라서 갓을 쓴 차림이 적합하다. ()
* 두루마기와 바지저고리 ①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이 좋다. () ② 바지 저고리 차림이 좋다. ()
* 좌대의 크기 ① 동상이 멀리서 보이도록 좌대를 1.5m 높이로 해야 한다. () ② 보는 사람이 가깝게 볼 수 있도록 80cm 정도가 좋다. ()

이 설문지와 함께 받은 의견은 다양했다.

*** 갓을 쓴 전봉준 동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

- ① 상투 차림은 체포된 후 모습으로 지도자 활동했을 때의 모습이 아니다.
- ② 갓 차림은 전봉준 장군이 농민군을 지휘했을 때의 모습이다.
- ③ 체포되어 심문받을 때의 상투 차림으로 동상을 만들 수 없다.
- ④ 전봉준 상투 차림 사진은 많은 사람이 본 것으로 강하게 인상에 남아있다.
- ⑤ 갓 쓴 모습보다 상투 차림 모습에서 농민군 지도자상이 표현된다.

*** 두루마기 입은 모습에 관한 의견**

- ① 맨 상투에 두루마기는 어울리지 않는다.
- ② 서 있는 동상은 두루마기 차림이 적합하다.
- ③ 사진의 바지저고리 모습도 농민군 지도자로서 적합한 상이다.
- ④ 차선책이지만 맨상투에도 두루마기 모습이 적합하다.

*** 좌대 높이에 관한 의견**

- ① 최근 동상은 눈높이에 맞춰 낮은 상으로 건립한다.
- ② 너무 낮은 동상은 존경심이 나지 않는다.
- ③ 낮은 동상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 ④ 동상 좌대가 높아야 멀리서 볼 수 있다.
- ⑤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낮은 좌대가 적합하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전봉준 장군이 왜군에 잡혀 처형 직전의 처절한 모습을 기릴 것인가, 민중 앞에서 지휘할 때의 당당한 모습을 기릴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전봉준 장군의 기개와 용기를 기리고자 하는 것이니, 당연히 전장에서처럼 두루마기에 백립을 쓰도록 하자.

② 현재 전봉준 동상의 모습을 참고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도록 건립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한 바지저고리 모습보단 두루마기로 하였으면 한다.

③ 동학농민혁명정신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바지저고리가 그 시대를 이야기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④ 동상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전봉준 장군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 먼저 떠오르는 전봉준 장군은 상투 튼 농민군의 지도자상이고, 바지저고리보다는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이 어울린다.

⑤ 동상은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물 크기의 동상, 당대 입고 있을 법하더라도 당시 농민 붕기를 상징할 수 있는 옷차림, 그리고 민중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상징화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⑥ 많이 알려진 모습대로(사진) 동상을 세우면 좋겠다. 다른 인물들과 차별화된 모습으로(상투, 바지저고리 차림) 동상을 세우면 좋겠다. 가깝게 만져도 보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80cm) 동상이면 좋겠다.

다수의 의견은 집약된 것은 다음과 같았다. / 종로에 세우는 동상은 사진 그대로 상투 모습이 적합하다. / 서 있는 모습은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이 좋다. / 보는 사람이 가깝게 볼 수 있도록 80cm 정도가 좋다.

좌대의 높이는 낮게 만드는 것에는 다수가 동의하였지만 맨상투에 두루마기를 입고 서있는 모습으로 제작될 경우 이미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었다. 더구나 황토현에 있는 전봉준 동상과 비슷한 형태로 보여질 수 있었다. 이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였다.

동상제작소위에서 기존의 전봉준 그림과 동상에서 제기된 문제가 소개되었다. 한 예가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얼굴은 체포당해 압송될 때 찍힌 사진 - 사진기자를 노려보는 중 - 을 보고 그린 것이라 분노와 한과 울분이 가득한데, 몸은 도포를 입고 가죽신을 신고 정자관까지 쓰고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갖다붙여서, 위아래의 완벽한 언밸런스를 일으켜 동학혁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어딘가의 양반네 종갓집 성질머리 고약한 종손썸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 후 전두환 전 대통령 때(1987년) 황토재 전적지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전봉준 장군 동상은 문제의 정자관을 벗어 맨상투 바람인데, 이번에는 뜬금없이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동상제작소위는 장시간 토론을 통해 갖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하였다. 결론은 “상투 모습의 전봉준 상을 만들고, 바지저고리 차림으로 표현하며, 좌대는 낮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상을 입상이 아니라 좌상으로 만들면 두루마기를 입지 않아도 고증문제도 표현문제도 위상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전봉준 사진에 나타난 모습을 재창조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동상제작소위가 기대한 것은 명백하였다. 보통 동상은 보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으나 사진 모습의 좌상으로 만들면 친근하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했다. 서민 풍모의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카리스마를 표현하는 것이 목표였다.

다른 동상과 비교하면 더욱 그 특징이 드러났다. 남산도서관 아래의 다산 정약용 동상은 위인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거리감을 느낄 정도였다. 거창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달리 가마 위에 앉은 모습은 거부감이 없을 것이었다. 더구나 건립 위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였다. 종로 네거리의 전봉준 동상의 높이는 접근하기 쉽고 만질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작가에게 전달되었고, 작가도 동의하였다. 작가는 자료를 면밀히 고찰해서 전봉준 상을 재창조하였다. 우선 좌상의 형태를 안정되게 구상

하였다. 사진과 같이 몸체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조형미를 배가하였다. 다음으로 동상의 얼굴을 약간 가름하게 만들었다. 사진 각도는 정면이라서 둥글게 나왔지만 아래서 보면 가름한 얼굴로 보인다는 것이다. 당시 전봉준은 오래 동안 심한 열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부어있었다고 보았다. 이를 본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마에 난 주름살과 수염도 기록에 따라서 조각하였다.

전봉준 동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강렬한 눈빛이다. 이 눈빛도 누구를 위압하거나 공격하려는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나게 하였다. 누구든 그 앞에 서면 마주 보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눈빛이다. 두 손은 땅을 짚고 있다. 손을 들어서 표현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의지가 전달된다.

5. 맺는 말

서울에 역사 인물 전봉준 동상을 건립하자는 주장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왕조의 도성이 위치한 서울은 동학농민군의 진군 목적지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 63년을 척족 안동김씨가 정권을 농단하였고, 다시 척족 여흥민씨가 22년간 정권을 장악해서 민생이 파폐해졌다. 무능하고 부패한 척족 민씨정권을 제거하고 폐정개혁을 수행할 무대가 서울이었다. 일본이 군대를 보내서 국왕을 인질로 잡고 내정간섭을 하는 중심도 서울이었다. 동학농민군은 일본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전면 봉기하였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은 붙잡혀서 종로 네거리 전옥서에 갇혔다. 그리고 길 건너에 있던 권설재판소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국하였다. 124년만에 전봉준은 그 자리에 동상으로 돌아왔다. 국민모금을 통해 많은 사람이 종로 귀환을 환영하였다.

전봉준 동상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역사성과 사실성을 토대로 예술성 구현해야 하고, 설치장소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돋보이는 형태의 조형물로 보는 이의 눈높이에 맞아야 했다. 전봉준 동상은 개인 동상을 넘어 그의 동지들을 함께 의미하는 동상이다. 동시에 당시 희생자들과 생존 동학농민군들의 분투 노력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1894년에 맞았던 난국의 극복과 모든 국내 세력이 힘을 모아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통합 정신을 상징하고 있다.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은 종로 네거리에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의미를 전하는 기념비로 서 있다.

전봉준 장군의 전옥서 수감과 교형의 의미

왕현종(연세대)

< 目 次 >

1. 머리말
2. 전봉준의 피체와 심문 과정
3. 재판부의 전봉준 선고 근거와 판결의 쟁점
4. 전봉준의 처형 장소와 죽음의 서사 그리고 기억

1. 머리말

“「너희는 나를 죽일진대 밝은 종로네거리에서 목을 베어 오고가는 사람에게 보여 주는 것이 옳은 일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캄캄한 적굴 속에서 암연히 죽이느냐? 이놈들, 내 우둔한 탓에 너희놈들 손에 죽는다만 머지 않아 꼭 현인지자 나타나 광패한 섬오랑캐 너희놈들을 내쫓고.....」 하며 손가락을 뻗쳐 들어 왜놈 영사를 가리켰다. 그리고 서광범이쪽을 똑바로 쏘아보며 「원수와 창자를 맞히고 나라를 해하며 일신의 부귀만을 쫓는 너희놈들을 모조리 쳐없앨 것이다!」.”¹⁾

북한의 최고 역사소설가로 유명한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 3부 마지막 부분이다. 1895년 4월 법무아문의 권설재판소에서 열린 선고 이후 전봉준이 사형대에 오를 때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교수대에 선 전봉준의 최후를 묘사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은 것은 아니다. 이 일화는 1940년 오지영 『동학사』의 서술을 빌린 것이다. 오지영은 이렇게 기술하였다.

1) 박태원, 『갑오농민전쟁』(5, 제3부 새야 새야 파랑새야, 원전 1986년 간행), 깊은샘, 1989, 350쪽.

“그는 형을 받을 때 교수대 앞에서 법관의 말「가족에 대하여 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한다. 「나는 다른 말은 없다. 나를 죽일진대 종로(鐘路) 네거리에서 목을 버혀 오가는 사람에게 내 피를 뿌려 주는 것이 가(可)타 하였다. 어찌 컴컴한 적굴 속에서 암연(暗然)히 죽이느냐하고」준절이 꾸짖었다 한다.”²⁾

그런데 전봉준의 재판 이후 처형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그동안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실제 교수대에 선 전봉준이 어떻게 말했는지 알 수 없다. 다른 사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그의 언사는 확인할 도리가 없다. 따라서 본 발표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재조명을 위해 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의 재판과정과 최후의 순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³⁾

당시 1894년 동학농민전쟁시기 전봉준을 위시한 농민군지도자와 동학농민군 참여자들은 2차례 봉기를 통해 조선사회의 전면 개혁을 추구했다. 농민군의 대규모 봉기는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특정 지도자의 힘이라기보다는 다수 농민들의 참여와 연대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점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4년 1차 봉기에 이어 9월 이후 2차 봉기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역량과 전략 문제에 방점이 매겨져 있다. 그 이유는 2차 봉기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실패를 초래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전략적 실패에 두어지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전봉준이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으며 스스로 전술적 실패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주제이다. 여기서 이러한 전봉준의 재판과 최후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되짚어 봄으로써 농민군 재판과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려고 한다.

2. 전봉준의 피체와 심문 과정

전봉준은 1894년 12월 2일 순창에서 체포되었다.⁵⁾ 전봉준은 잠시 순창에

2)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40, 160~161쪽. 원래 동학사의 초고본에서는 “그가刑을받을때絞首臺(가)에서法官의말(家族에對하야할말이잇스면말하라)을듯고이러케말을하엿소나는다른말은없다나를죽일건대鍾路네거리에서내목을버혀올가든사람의게내피를뿌려주는것이可타한다엇지컴컴한賊窟(가)속에서暗然히죽이는것이 무슨싸닥라고준절이꾸지졌쇼”라고 하였다(오지영, 『동학사』초고본 4, 66~2쪽, 참조)

3) 왕현중, 「1894년 농민전쟁 지도자의 재판과정과 판결의 부당성」 『한국사연구』 168, 2015.3, 참조.

4) 김용섭, 「전봉준공초의 분석-동학난의 성격일반」 『사학연구』 2, 1958.12 ; 「전봉준공초」 『동학란기록(하)』, 국사편찬위원회, 1971 ; 「전봉준 해적이」, 「전봉준판결선고서」, 「전봉준공초」 『나라사랑』 15, 1974, 참조.

5) “전라 감사 이도재(李道宰)가 전보(電報)로, ‘이 달 9일에 비적(匪賊)의 괴수 전봉준(全琫準)을 산 채로

수감되었다가 12월 7일 일본군에게 인도되고 중간 수감지인 나주로 이송되었다.⁶⁾ 이어 12월 9일 전주를 거쳐 서울로 압송되었다.⁷⁾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은 서울에 도착한 이후, 일본공사관 등지에서 본격 심문을 받았다. 이를 일지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

<표 7> 전봉준 심문 관련 기사 일지(1895.1.4.~3.5.)

순서	기록 날짜	제목	내용	근거
1	1895.1.4.(음 12.10)	전라감사 이도재 보고	全羅監司 李道宰 以電報 本月初九日 匪魁 全瑋 準 生擒 押上 啓	고 종 실 록 (1894.12.10.)
2	3.2(음 2.6)	東學黨大巨魁生擒	동학당 2대 거괴 전녹두(봉준) 사로 잡음	오사카아사히신문(1895.3.2., 5면 2단)
3	3.3(음 2.7)	全祿斗의 申供(2월 19일)	동학당정토군 제19대대 사령관 미나미 소좌의 최초 취조기록, 체포 당시 전봉준과의 취조와 공술, 일본의 역할 조선 독립국, 속국 질문	오사카아사히 (1895.3.3.2-1)
4	3.5(음 2.9)	東學黨大巨魁와其口供	동학당정토군 독립 19대대 사령관 미나미(南) 소좌 포획 당시, 질문에 대한 대답 - 중국의 목적은, 첫째 閔族을 무너뜨리고 한 패인 간신을 물리쳐서 폐정을 개혁하는데 있고, 또한 轉運使를 폐지하고 田制 山林制를 개정하고 私利를 취하는 小吏를 엄중히 처단할 것을 원할 뿐	도쿄 아사히 (1895.3.5.5-1)
6	3.5(음 2.9)	朝鮮時事(2월 18일 京城 靑山好惠) 東學黨大巨魁生擒	전봉준 등 지도자의 일본공사관 이송	도쿄 아사히 (1895.3.5.,2-4), 오사카 아사히
7	3.7(음 2.11)	雲邊과 東學黨-朝鮮時事(2월 21일 경성 靑山好惠)	동학당과 대원군의 관련성 보도	도쿄아사히신문 (1895.3.7.2면 6단)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들이 체포된 사실은 즉각 보도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도쿄아사히신문』에는 1895년 3월 5일자로 전봉준 등 지도자의 일본공사관 이송을 전하고 있다. 이는 원래 2월 18일 채록한 것이었다.⁹⁾ 또한 최경선, 홍락관, 박봉양, 김득명(金德明), 손화중(孫化仲), 김방서, 고향택, 권풍식 등에

잡아서 압송하여 올려 보내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全羅監司 李道宰 以電報 本月初九日 匪魁 全瑋 準 生擒 押上 啓)"(『고종실록』 고종 31년 12월 10일 임자).

6) 『순무선봉진등록』(『사료총서(14)』, 107~108쪽·120~121쪽·197~198쪽) ; 『선봉진일기』(『사료총서』(16), 104~105쪽) ; 『선봉진정보첩』(『사료총서(16)』, 216~217쪽) ;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사료총서』(16), 116쪽).

7) 전라감사 이도재는 전주 인근에 아직 농민군들이 다수 둔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로 이송도중에 탈취당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12월 3일 오후 4시경 김개남을 서교장에서 전격 참수하고, 수급만 서울로 보냈다고 하였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1권, 197쪽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2-4쪽·8쪽).

8) 이하 글은 2017년 발표문 「전봉준 장군의 정국 구상과 '서울'의 장소성」(『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창립총회와 학술발표회, 2017년 3월 23일, 14~15쪽)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

9) 『도쿄아사히신문』 「朝鮮時事」(2월 18일 경성 靑山好惠), 1895.3.5.3면, 4~5단 기사.

대한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일본군 사령관의 최초 심문기사는 1895년 3월 3일자에 보도된 「한산풍운록(韓山風雲錄)」(2월 18일) 경성 특파원 아오야마 요시에의 보고에서였다.¹⁰⁾

한편 전봉준이 서울로 와서 일본영사관에서 취조 당한 사실은 『도쿄아사히신문』 3월 5일자 <조선시사>에 나타나있다. 일본공사관 전정(前庭)에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공사가 전봉준을 직접 심문하였다. 이노우에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폭거(暴擧)에 이르렀는가”라고 꾸짖었다. 전봉준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자못 중앙정부에서 간녕(奸佞)을 쫓아낼 계획”이라고 하고, 다음으로 “작년 6월 일본병이 서울에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공히 척양(斥攘)하려고 드디어 의병을 일으키기에 이른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또 “우리 동학당의 군은 무리이고 훈련 없이 무기나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공히 정예한 일본병을 쳐서 이길 것이라고는 평소에 믿지 않았지만, 임금이 욕을 보였다면 신이 죽어 시체가 된 후에라도 그친다는 결심으로 일어났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¹¹⁾ 전봉준은 다년간의 지방관의 학정으로 일어났으며, 일본군의 궁궐 침범의 본의를 알기위해 의병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일본공사관에도 사신을 보내 문의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다. 이렇게 당시 농민군지도자 전봉준은 이노우에 주한일본공사에 의해 2차 봉기의 목적을 집중 추궁당하였다.

위의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심문은 처음부터 일본의 지휘아래 이루어져 있었다. 조선주재 일본공사관 및 영사관에서 주도하였고, 이후 법무아문의 심문과정에서도 이들이 회심(會審)이라는 구실로 조선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며 재판에 간섭하고 있었다. 실제 일본국 영사관 및 일본군의 입장에서 이들의 압송과 심문 방침으로 “一. 이름 있는 거괴(巨魁)는 모두 경성(京城)에 호송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¹²⁾

전봉준이 서울로 압송당하고 나서 재판 전에 수형생활을 시작한 곳도 일본영사관 소속 경찰서였다. 이 곳은 서울 남산 아래 있었다.¹³⁾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메자마시 신문』(391호 제5면에 게재된 ‘특파 사진사 무라카미 덴신

10) 왕현중, 「1894년 농민전쟁 지도자의 재판과정과 판결의 부당성」 『한국사연구』 168, 2015.3. 219~260쪽, 참조.

11) “이어 의병 이후의 일에 대해 묻자, 전봉준은 “이제 한번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온 본질을 확실히 하고자 한 통의 조회서를 일본공사관에 보냈는데, 使者가 두려운 바가 있었는지 그 글을 남대문 밖의 酒家에 부탁하여 돌아왔다고 한다. 그 글이 만약 속히 귀공사관에 달했다면 우리들의 운동도 지금처럼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노우에 공사는 “다시 이 폭거를 이루고 지방 양민을 고통에 빠뜨린 결과, 義兵의 본뜻로 가리우는가”라고 물었다. 전봉준은 다시 “東學黨의 義兵을 일으켜 이를 타서 호기로 다년 지방관의 학정에 고통 받은 지방인민이 百姓一揆을 일으킨 것이고 오히려 東學黨의 所爲가 이와 같은데 世人이 잘못 생각함에 이르렀고 진실로 遺憾”이라고 하였다”(『朝鮮時事』(2월 18일 경성 靑山好惠) 『도쿄아사히신문』1895.3.5.3면, 4~5단 기사).

1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7권, <東學徒 幹部의 체포 보고 및 처분 件(2)>(1895.4.13.), 참조.

13) 전봉준은 일본영사관 순사청에 수감된 사실은 이이화, 『전봉준, 혁명의 기록』 생각정원, 2014, 223~224쪽, 참조.

(村上天真)'의 <경성단신>(京城短信, 3월 2일발 기사) 중 「전봉준(全捧準)을 촬영함」이라는 기사에 실려 있다.

“한때 전라도 지방에서 창궐했던 동학당 중의 수괴 전봉준, 최경선, 손화중을 비롯한 기타 6명을 일본군이 호송해 왔다. 우리 영사관에서 일단 취조를 마치고 지난 27일(2월 27일) 법부대신에게 인도하였다. 수괴 전봉준 및 최경선 두 명은 다리에 중상을 입어 신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영사는 의사를 불러 세심하게 치료를 시켰고, 법부아문에 회송하는데 가마에 태우고 호송했다.”¹⁴⁾

이렇게 전봉준의 피체와 서울로의 압송을 일본인 기록자들은 처음에는 전봉준의 초지를 강조하면서 농민군의 봉기를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그림 1> 전봉준 관련 사진 및 삽화 그림	
	원본크기 11×15cm, 촬영자 무라카미 덴신(村上天真) 1895년 2월 27일(『写真画報』 제14권, 春陽堂, 1895년 5월, 金文子の 책, 311쪽, 재인용)
	윌리엄 그리피스의 <그리피스 컬렉션> 양상현 순천향대 건축학과 교수 발견(『경향신문』 <‘녹두장군 전봉준’ 압송 사진 새로 발견> 2015.4.24. 기사)

14) “봉준은 전라도 태인의 평범한 농민, 올해 40세, 평생 동안 학문을 좋아하고 공맹의 가르침을 믿었으며, 동학도의 무리에 들어온 지 올해로 3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가 항상 말하기를, 현재 조선인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통일됨이 없고 관리의 횡포도 바로잡지 못했다. 그런데 동학당의 교리는 자기를 바르게 하여 타인에게 미치게 하고 인민의 협동일치를 주로 하며, 인심을 바르게 하고 서리들의 폐단을 제거하여 왕성하게 우리 당의 결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그가 동학당에 가입한 초지(初志)였다.”(김문자, 『명성황후 시해와 일본인』 태학사, 2010, 번역본, 381~382쪽, 재인용).



「압송당하는 전봉준」(『오사카 마이니치신문』1895년 3월 12일 제3면, 金文子, 『한국사연구』 154, 2011, 238쪽 재인용)

이렇게 일본정부측 관련 인사들은 전봉준의 피체와 재판과정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였다. 서울 주재 일본 영사는 거의 매번 심문과 재판 과정에 간여하였다. 1894년 11월 중 법무아문(法務衙門)이 동학당사건의 심문을 개시하자, 우찌다 사다즈치(内田定槌) 영사는 주한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훈령에 따라 간여하였다고 한다. 그는 조약의 규정에 의거한다며 매회 법정에서 출석하여 당해 관리와 심리를 행하였다. 첫 번째 심문에 참여한 11월 2일 시작하여 그 후 날을 보내기를 175일, 법정에서 출석하기를 전후 31회, 피고인을 취조한 것이 61명, 압수한 증빙서류를 검열한 것이 실로 1,496통에 이르렀다고 한다.¹⁵⁾ 이렇게 일본은 조선정부의 정식 심문과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전봉준의 봉기 의도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었다.

전봉준은 일본영사관 영내에서 우찌다 사다즈치 영사의 일차 조사를 받은 후, 1895년 2월 27일(음력 2월 3일) 조선정부가 보낸 순사대에 호송되어 조선정부의 법무아문으로 인도되었다.¹⁶⁾ 그래서 법무아문과 가까운 전옥서 감옥에 수감되었다.

1894년 당시 법무아문의 권설재판소는 갑오개혁 이후 법률의 처결을 담당하기 위해 세워졌다. 우선 명칭을 변경하는 법령을 통하여 종래 의금부의 역할을 바꾸어 법무아문 ‘권설재판소’라고 하였다.¹⁷⁾

“法務衙門 啓言에 따라 地方裁判外의 法務衙門의 一切 裁判權은 義

1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8권, 「東學黨事件에 대한 會審顛末 具報」(1895년 8월 2일, 在京城 一等領事 内田定槌=>特命全權公使 井上馨), 참조.

16) 발표자의 종전 논문(「1894년 농민전쟁 지도자의 재판과정과 판결의 부당성」『한국사연구』 168, <표 1> 「전봉준공초」 편집 순서와 내용정리(232쪽)에서 재판 날자를 양력으로 비정했는데, 이는 신문기사와 대조할 때 음력이 맞아 여기서 새로 수정하였다.

17) 이 권설재판소의 설치에 대해 이론이 있다. 문준영은 이 법령이 실제 주본으로 올려 시행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설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문준영, 「1895년 裁判所構成法の ‘出現’과 일본의 役割」 『법사학연구』 39, 2009.4, 61쪽, 참조)

禁司(義禁府, 1894년 7월 12일 의금사로 개칭)에서 行하며 該司를 改名하여 法務衙門 權設裁判所라 하고 諸般 裁判은 모두 該所에서 行하게 하다.¹⁸⁾

이 조치 이전에 12월 10일에는 적도, 투고, 간범, 사위 등에 관하여 종래 태·장·도·유형을 징역으로 대치하는 것을 제정하였고, 12월 16일 같은 날 혹형의 도구를 없애고 형구를 제한하는 건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동학농민의 봉기를 비롯한 국가 중대사건을 다루는 기관으로 의금사를 개칭한 법무아문 권설재판소가 담당하게 하였다.¹⁹⁾

또한 12월 27일에는 “일체 사형죄에 대하여 능지처참(陵遲處斬) 등의 형률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²⁰⁾ 이로써 법무아문에서 형벌하는 것은 교수형(絞首刑)만을 적용하고, 또한 군율(軍律)에 의하여 형벌하는 것에는 총살만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렇게 중세적인 참형을 금지한 것은 그만큼 인명을 중시하는 갑오개혁의 법률개혁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의 전봉준 심문(1895.3.5.~4.4)

순서	기록 날짜	제목	내용	근거
1	3.5(음 2.9)	初招問目	전봉준의 신상과 농민군 봉기 경과 심문	전봉준공초
2	3.6(2.10)	東學首領과合議政治	합의법에 의한 정치 담당 주장	도쿄 아사히(해당 일자 생략)
3	3.6(2.10)	東學首領과合議政治	일본 警部の 질문, 전봉준이 임금의 곁을 깨트린 후에, 여러 명의 명사에 의한 합의법 주장	오사카 아사히
4	3.7(2.11)	再招問目	봉기 과정 및 주도층, 조직에 대한 심층 심문(問 再次起包 因日兵犯關之故再舉云 再舉之後 於日兵 欲行何舉措耶 ; 供 欲詰問犯關緣由)	전봉준공초
5	3.9(2.13)		동학당 거괴 전녹두, 일본영사관에 구치 후 병 요양, 금일 법무아문으로 인도된다는 설, 우치다(內田) 경성영사도 배심,	오사카 아사히, 도쿄아사히
6	3.12(2.16)	東學黨大巨魁-朝鮮時事(2월 27일 경성 靑山好惠)	일본 공사에게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조언에 대해 憤然히 듣고 “이 시기에 미처 여하히 비열한 마음을 갖겠는가하며 나는 죽음을 기다린 지 오래다” 라고 하였다	도쿄아사히
7	3.12(2.16)		一昨日寫眞師 村上文眞 氏, 天祐俠의 巨魁 田中次郎, 전봉준이 법무아문에 인도되어 영사관을 나오	오사카아사히

18)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12월 16일, 『일성록』 고종 31년 12월 16일, 『고종실록』 고종 31년 12월 16일, 『관보』 개국 503년 12월 16일, 참조.

19)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의 위치는 종전 의금부를 대체한 의금사로 「수선전도」 중에서 종로의 종각을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지역으로 금부(禁府)로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권설재판소는 시전(市典)의 위쪽에 있으며, 반대편으로 시전 아래에 위치한 전옥(典獄)이 저전(苧典)의 위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0) 『관보』 개국 503년 12월 27일, 참조.

			는 장면	
8	3.15(2.19)	三招問目	대원군과의 관련성 집중 심문	전봉준공초
9	3.15(2.19)	五次問目	2차 봉기의 발발 배경과 동기 질문(日領事問)	전봉준공초
10	3.16(2.20)	전녹두의 심문	동도대피 전녹두의 심문, 금일 오후 법무아문에서 개시, 우치다 경성영사 회심	오사카 마이니치
11	3.17(2.21)	전녹두의 강개	어제 법무아문 심문에서 동도 수령의 大言	오사카 아사히
12	4.1(3.7)	四次問目	전봉준 추가 질문, 2차 봉기 과정 심문(日領事問)	
13	4.4(3.10)	全捧準 五次問目	홍선대원군 효유문, 밀지 관련(日領事問)	전봉준공초

위와 같이, 전봉준의 심문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²¹⁾ 그런데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3월 6일자(음력 2월 10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일본 영사관에서 이루어진 심문 중간에 일본 경부(警部)가 “네가 경성(京城)에 공격하여 들어온 후에 누구를 추대하려고 하였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전봉준은 “일본군을 배격하고, 악간(惡奸)의 관리를 축출하고 임금 주변을 깨끗이 한 후에 주석(柱石)의 사를 세워 정치를 담당케 하고 우리들은 바로 전사(田舍)로 돌아가 농부가 되는 것이고, 더욱 국사(國事)를 거론하면 일인의 세력가에게 위임하는 것은 크게 폐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고로 여러 명의 명사(名士)의 합의법(合議法)에 의하여 정치를 맡게 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²²⁾ 아직 전봉준의 심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봉준의 봉기목적보다 구체적으로 알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범죄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하나의 관건이 되었다.

3. 재판부의 전봉준 선고 근거와 판결의 쟁점

1895년 4월 23일 마침내 전봉준 등 농민군지도자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전봉준의 판결선고서에는 전체 농민전쟁의 전개과정과 전봉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그 중에서 2차 봉기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1]其後 被告는 日本軍隊가 大關로 드리갓단말 듯고 必是 日本人이 我

21) 전봉준 재판 진행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왕현종, 위의 논문(2015), 230~240쪽 참조.

22)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東學首領과合議政治」(1895년 3월 6일자) 참조.

國을 併呑코져 하는 뜻신줄 알고 日本兵을 쳐물니고 其居留民을 國外로 驅逐할 마음으로 다시 起兵을 圖謀하여 全州近處 三禮驛이 土地廣濶하고 全羅道 要衝之地기로 同年 九月分에 泰仁를 發程하여 院坪을 지나 三禮驛을 니르러 그곳으로 起兵하는 大都所를 삼고 鎮安居 東學接主 文李八 全永東 李宗泰 金溝居 接主 趙駿九 全州居 接主 崔大奉 宋日斗 井邑居 孫汝玉 扶安居 金錫允 金汝中 崔卿宣 宋熹玉 等과 同謀하여 上年 三月以後 被告와 同事한 匪徒 巨魁 孫化仲以下 全州 鎮安 興德 茂長 高敞等處 遠近 各地方人民더러 或檄文을 돌니며 或專人하여 遊說하고 全羅右道の서 軍士를 모으기를 四千餘名이 되미 處處 官衙의 드러가서 軍器를 强奪하고 또 各地方富民한씩 錢穀을 徵捧하여 三禮驛을 떠나 가면서 徒黨을 募集하고 恩津 論山을 지나 黨類萬餘名을 거나리고 [2] 同年 十月二十六日쯤 忠淸道 公州를 다다렸더니 日本兵이 못져 州城을 雄據하여잇기의 前後 二次接戰하여 보왔것마는 두번 다 大敗하였는지라 그러나 被告는 더 日本兵을 치려하였더니 日兵이 公州의 잇서 움즈기지 안코 其間의 被告包中이 漸漸 逃散하여 收拾지 못하게 되었기로 不得已 하여 [3] 한번 故鄉으로 도라가 다시 募兵하여 全羅道の서 日兵을 막으려하였더니 應募者가 없는타스로 同謀三五人과 議論하고 各其變服하여 가만이 京城으로 드러가 情探코져 하여 被告는 商人 민도리 하고 單身으로 上京次 泰仁을 떠나 全羅道 淳昌을 지날시 民兵한테 잡힌것시니라²³⁾

재판선고서에 기술된 [1] 부분은 일본영사관과 권설재판소에서의 심문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이었다. 2차 봉기와 흥선대원군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봉준공초에 나타난 것처럼 수차례의 진상 규명이 시도되었다.²⁴⁾ 더구나 일본군의 침략에 대해 “일본인이 아국을 병탄코져 하는 뜻인 줄 알고” 오해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원래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건에 대해 아무런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다. 또한 전봉준은 일본군과 일본인에 대한 대책에 경성에 있는 외국인과 일본인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듯한 대답을 하였으나 이 부분도 반영하지는 않았다.²⁵⁾ [2]와 [3]부분도 역시 공주에서의 전투와 그 이후에도 일본군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웠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23) 「제37호 판결선고서 원본」 『판결선고서』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1994), 29~31쪽.

24) “실제 전봉준은 공초에서 “其後에 聞한직 貴國이 開化라 稱하고 自初로 一言半辭도 民間에 傳布함이 無하고 또 檄書도 업시 率兵하고 우리都城에 入하여 夜半에 王宮을 破擊하여 主上을 警動하였기로 草野의 士民더러 忠君愛國之心으로 慷慨함을 不勝하여 義旅를 糾合하여 日人과 接戰하여 此事實을 一次請 問코져 합니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전봉준공초』 「乙未 2월 11일 全琫準 再招問目」 앞의 책(1994) 9쪽).

25) ““그러미 아니라 各國人은 다만 通商만 하논디 日人은 率兵하여 京城에 留陣하는 故로 我國境土를 侵掠하는가 疑訝함입니다.”이라 하여”(『전봉준공초』 「乙未 2월 11일 全琫準 再招問目」 위의 책(1994) 14쪽).

따라서 판결선고서에는 2차 봉기가 일본군의 경북궁 점령과 조선 병탄의 의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2차 봉기에 대한 전봉준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지만 판결선고서에는 일본의 침략성에 대해서는 부정과 긍정도 하지 않은 채,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의 전투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별다른 처형의 근거를 내세우지 못했다. 결국 동학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평결은 농민군의 2차 봉기가 추구했던 목적이나 지향점에 대한 것과는 크게 달랐다. 요컨대 조선국가의 국내 문제와 형법적 지배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이러한 전봉준의 재판 과정과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당시 상세한 전말을 보도한 일본측의 신문보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본 신문기사의 보도 상황에서 주목되는 점은 전봉준 등 동학지도자의 재판이 당시 일본 신문에 날짜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뒤늦게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일본군의 보도통제로 말미암은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조선주재 특파원의 개인 사정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⁶⁾

당시 동학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심문과 재판과정을 구체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신문은 도쿄와 오사카에서 동시에 발행되던 아사히(朝日)신문이었다. 1895년 3월부터 5월까지 여러차례 심층 보도를 하고 있는 아사히신문의 경성 주재 특파원으로 일했던 기자는 아오야마 요시에(青山好恵, 1872~1896)였다. 그는 1890년에 인천 일본 거류지로 건너와 일본인을 위한 『조선신문』에 관여하여 주필로서 인천주재 일본거류민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1894년 농민전쟁에 관한 일체 기사와 전문 등을 송고하는 통신원으로서 역할하였다.²⁷⁾

그가 작성한 기사는 인천에서부터 우편으로 송고하여 발신 5,6일후에 『오사카아사신문』 지상에 게재되었고, 또 전신은 인천-한성-부산-나가사키의 경로를 거쳐 부산선 등을 거쳐 통상 인천에서 도쿄간에는 3~4시간에 통달되었다고 한다.²⁸⁾ 그만큼 긴밀한 기사는 전신으로 바로 몇 시간만에 전달되었고, 우편 송고의 경우도 5~6일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농민군 재판과 전봉준 동정 기사는 종전 신속한 피체 보도와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1895년 3월 29일(음력 3월 4일) 재판소에서의 선고 관련 기사는 그때 송고되지 못하고 거의 1달 후인 4월 23일에 보대졌다.

26) 井上祐子, 『日清・日露戦争と寫眞報道』 吉川弘文館, 2012, 28~83쪽, 참조.

27) 나카가와 미라이(中川未來), 『『朝鮮新報』主筆青山好恵の東學農民戦争報道-1880年代の朝鮮情報流通と居留地メディア』 『人文學報』 111, 2018, 3, 127~140쪽, 참조.

28) 나카가와 미라이, 위 논문(2018), 137쪽.

실제 도쿄아사히신문에 실린 것은 무려 2주일이나 지난 5월 7일에 보도된 것이었다. 실제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행한 전봉준 등에 대한 선고일은 3월 29일이므로 이 기사는 선고일 다음날에 송고한 기사였다. 이 기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늦게 전달된 것이지만, 물론 아사히 신문에는 전봉준 사형에 관한 기사는 없다. 전봉준 등의 사형일에 대해서는 다른 신문에서만 특보로 전하고 있다.²⁹⁾

<표 3>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의 최종 선고

순서	실제 날짜	기록 날짜	제목	내용	근거
1		3.29(음 3.4)	전봉두의 처분	전봉두 및 기타 동도 거괴 등의 심문은 대반 종결, 판결 23일 중에 있을 것임(이상 15일발)	오사카 아사히
2	4.23(양)	3.29(3.4)	판결 선고	전봉준 등 21명의 농민군 지도자 최종 판결, “軍服騎馬作變官門者 不待施斬” 사형 선고	판결선고서
3	4.23(양)	5.7(4.23)	東學黨巨魁의裁判	朝鮮時事(四月二十三日) 京城 靑山好惠, 동학당 대거괴 전봉두, 성두한 이하 21명 심문 완결, 금일 오후 3시부터 권설재판소 법정에서 선고함.	도쿄아사히 2면 2~4단
4	4.24(양)	5.8(4.14)	東學黨巨魁宣告餘聞	작일 법무참의 장박과 전봉두의 선고 이후 논쟁	도쿄아사히
5	4.24(양)	4.27(4.3)	去二十四日 京城發電報(3.30)	전봉준 등 지도자 5명 처형	오사카마이니치

물론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재판과 처형에 대해서는 일본신문에서 특집기사로 다룬 것이외에도 후대의 기록이 있다. 이는 1920년대 중반 동학농민전쟁에 대해서 체계적인 역사서술을 담고 있는 오지영의 『동학사』기술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가] 이때 朝鮮政府안에는 日本黨인 朴泳孝 徐光範 等이 内外政權을 잡고잇섯다 平理院 首席은 朴泳孝가 차지하고 左右陪席 法官도 모도 다 그네들의 徒黨이엿섯다....朴泳孝는 左右羅卒을 號令하여 全瑋準을 일으키려 하였다 全瑋準은 말하되 內能히 안지 못하노니 너의는 할말이 잇스면 말하라 朴泳孝曰 네一介 罪人이라 엿지 敢히 法官의 압해 不恭이甚하는 全瑋準曰 네 엿지 敢히 나를 罪人이라 이르나뇨 朴泳孝曰 네 所謂 東學黨은 朝家の 禁하는 바라 네 敢히 徒黨을 嘯聚하여 亂을 지은 者라 亂軍을 모라 營邑을 陷落하고 軍器軍糧을 빼앗섯스며 大小命官을 任意로 죽이고 나라 政事를 참남히 處斷하였스며 王稅와 公錢을 私事로 받고 兩班과 富者를 모조리 沒收하스며 文書를 불질너 綱常을 문어뜨려스며 土地를 平均分排하여 國法을 渾亂케 하였스며 大軍을 모라 王城을 緊박

29) “全瑋準等の死刑 지난 二十四日 京城發의 電報에 의하면, 東學黨의 巨魁 全瑋準 외 5명은 어제 밤 사형에 처해졌다고 한다”(『大阪毎日新聞』 1895년 4월 27일(4월 3일) 기사, 참조).

하고 政府를 부수바리고 새나라를 도모하였나니 이는 곧 大進不軌의 法에 犯한지라 엇지 罪人이 아니라 이르나나 全瑋準曰....東學은 過去의 잘못된 世上을 곳쳐 다시 조흔 世上을 만들고저나온 者라 民衆에 害毒되는 貪官汚吏를 버히고 一般人民의 平等的 政治를 잡은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私腹을 채우고 淫邪에 消費하는 王稅公錢을 것우임 義舉에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祖上의 餼糈를 우려 行惡을 하고 衆人의 皮鬚을 글거 제물을 살지는 者를 업새 바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사람으로서 사람을 賣買하여 貴賤이 잇게하고 公土로써 私土를 만드려 貧富가 잇게 하는 것은 人道上 原理에 違反이라 이것을 곳치자 함이 무엇이 잘못이며 惡政府를 곳쳐 善政府를 만들고저 함이 무엇이 잘못이나 自國의 百姓을 처업새기爲하여 外賊을 불너드렸나니 네罪 가장 重大한지라 도로혀 나를 罪人이라 이르나나 朴泳孝이말을 드른 체도 아니하고 쏘다시 못는다”(《동학사》(초고본, 1926년경)) .

위의 인용문에서 밑줄 친 것처럼 재판장에서 전봉준재판을 주관한 것은 평리원 수석과 좌우 배석 법관으로 나온다. 『동학사』초고본에서는 박영효, 서광범 등 개혁관료들이 갑오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평리원의 재판을 주관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재판을 직접 담당한 판사가 박영효가 아니라는 점에서 초기부터 잘못된 기술이다. 초고본의 서술에서 재판정에서 박영효와 전봉준의 대담은 사실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당시 정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다. 예컨대 탐관오리의 징치와 조세문제를 거론하며 신분 평등과 공토 주장, 그리고 정부의 교체를 주장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때 朝鮮政府안에는 日本黨인 朴泳孝, 徐光範 등이 內外政權을 잡고 있을 때이다. 平理院首席과 左右陪席 法官도 모도 다 그네들의 徒黨이었었다.....法官들은 左右羅卒을 號令하여 일르켜 앉치라 하였다. 全瑋準은 말하되 內能히 안지 못하노니 너희는 할 말이 있거던 아무거나 말하라. 法官曰 네 一介 罪人이라 어찌 敢히 法官의 앞에 不恭이 이같이 甚하뇨 全瑋準曰 네 어찌 敢히 나를 罪人이라 이르나뇨. 法官曰 네 所謂 東學黨은 朝家의 禁하는 바라 네 敢히 徒黨을 嘯聚하여 亂을 이르켜 營邑을 陷落하고 軍器, 軍糧을 빼았었으며 大小命官을 任意로 죽이고 나라 政事를 참남히 處斷하였으며 王稅國穀을 私事로 받고 兩班과 富者를 모조리 沒收하였으며 宗文書를 불질러 綱常을 문어트렸으며 大軍을 모라 王城을 覬覦하고 政府를 부수워바리고 새나라를 도모하였나니 이는 곧 大進不軌의 法에 犯한 것이라. 엇지 罪人이 아니라 이르나뇨. 全瑋準曰....

東學은 過去의 잘못된 世上을 바로잡고저하는 자니 貪虐官하는 官吏를 없애고 그릇된 政치를 바로 잡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祖上의 뼈다구를 울려 行惡을 하여 百姓의 高혈을 빠라먹는 者를 없애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사람으로서 사람을 賣買하는 것과 國土를 弄하여 私腹을 채우는 자를 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나 너희는 外敵을 이용하여 自國을 害하는 무리다. 그 罪 가장 重大하거늘 도로혀 나를 罪人이라 이르나나 法官이 이말은 들은 채도 아니하고 또다시 묻는다. (《동학사》(간행본, 1940년) 156~158쪽).

위와 같이 1940년에 나온 간행본에서는 재판부의 법관이 전봉준과 대질 심문한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법관이 (가)의 자료에서는 박영효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나)의 자료에서는 법관들로 되어 있었다. 오지영은 이후 『동학사』의 출간본에서 박영효를 법관으로 내세우지 않은 채 범죄의 요건에 대해 상호 논쟁을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논박에서 (가) 자료에서는 “土地를 平均分排하여 國法을 渾亂케 하였스며”, “公土로써 私土를 만드려 貧富가 잇게하는 것은 人道上 原理에 違反이라” 등과 같은 토지개혁의 문제가 전면화되어 지적되어 있으며, 또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賣買하여 貴賤이 잇게하고 ”라는 등 신분제의 폐지 등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의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표현을 삭제한 채, “사람으로서 사람을 賣買하는 것과 國土를 弄하여 私腹을 채우는 자를 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나” 등으로 완곡한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서술 변경은 초고본을 쓸 때의 상황과 달리 간행본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았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초고본에서 토지와 신분제의 강력한 표현은 간행시에는 책발간의 금지 여부에 따라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개작(改作)’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1895년 4월 23일 당시 실제 재판정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도쿄아사히신문의 보도를 살펴보자.

“[다] 우리 정토군이 포획하였던 동학당 대거괴 전녹두(全錄豆), 성두한(成斗漢) 이하 21명의 심문 완료하였다. 오늘 오후 3시부터 권설재판소의 법정에서 재판장 법무협판 이재정(李在正)씨, 판관 법무참의 장박(張博)씨 등 우치다(內田) 경성영사의 입회를 얻어 재판을 선고하였다. 전녹두, 성두한, 최경선(崔敬先), 손화충(孫化忠), 김득명(金得明) 5거괴는 모두 사형에 처하였고, 바로 집행(執行)하였고, 기타 십수명은 죄의 경중에 의하여 장 1백 내지 삼백 원도 1천리 내지 3천리에 처하였다. 전녹두는 여러 곳의 총상 타상에 가해졌고, 오랜 일월에 거쳐 감옥에 갇혀 있어(入牢) 전

신이 쇠약하였고 과연 앉아서 지탱하기 어려웠음에도 형의 선고를 받고 마칠 때, 오히려 분연히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정도(正道)를 위해서 죽는 것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지만, 오직 역적(逆賊)의 이름을 받고 죽는다는 것이 간절히 유감”이라고 했다.³⁰⁾

또한 5월 8일자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동학당서괴선고여문(東學黨巨魁宣告餘聞)」이라는 기사에서는 법무아문 참의 장박이 전봉준에게 “너희의 금일 죽음이 매우 유감스럽지만, 네가 전라도에서 한 번 일어나자 일변하여 일청의 전쟁이 되고 이것으로 연하여 우리나라 대개혁이 되었다. 너희가 소위 탐관오리 민영준 등도 혹은 체포하여 국법에 처하거나 혹은 도망하여 그 죽적을 숨기고 있다. 금일에는 공명한 정사를 촉진한 것이므로 너희의 죽음으로써 금일의 공명한 정사를 촉구하였다.”고 하였다.³¹⁾

이렇게 재판정에서 친일 관료인 장박은 전봉준의 봉기가 결과적으로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면서 전봉준의 죽음으로써 도리어 금일의 판결이 공명한 정사로 결론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재판관의 입장으로서 전봉준은 국가의 역적으로 폭력적인 봉기를 일으켰으나 결과적으로 전봉준의 봉기가 오늘날 개혁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일본의 조선문제 개입과 갑오개혁을 결과적으로 긍정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다.

4. 전봉준의 처형 장소와 죽음의 서사 그리고 기억

이상과 같이 전봉준 장군 등 농민군 지도자들은 서울로 압송되어 남산 아래 일본 영사관 및 영사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후 종전 전옥서에서 개칭된 감옥서에 갇혔다.³²⁾ 또한 전봉준은 1895년 2월 27일 이후 법무아문의 권설 재판소가 있는 옛 의금부에서 여러차례 재판을 받았다.

그리하여 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은 1895년 4월 23일 법무아문의 권설재판

30) “손화충(손화중의 오류)도 사형의 선고를 마치고 퇴정하면서도 돌아보며 법관 및 나(기자) 등 일본인을 한번 꿰뚫어 보고 말하기를, “민을 위하여 의군(義軍)을 일으켰고 사형에 처하여 천하에 그 비리(非理)한 것과 조선사회의 현상은 용사(勇士)를 몰아 그것으로 향하는 바를 잘못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처럼 가린한 최후를 맞았다. 슬프다”고 했다. 이날 너희들이 신문기자 수명도 역시 특별히 허락을 얻어 방청하고 조선의 법정에 일본신문지가의 방청을 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도쿄아사히신문』(東京版) 1895년 5월 7일자, <조선시사>(4월 23일, 경성 아오야마 요시에(靑山好惠), 2면 2~4단)

31) 『도쿄아사히신문』(大阪版) 1895년 5월 7일자, 화요일 조간, (4.24), 경성 아오야마 요시에(靑山好惠), 5면 1단) 『도쿄아사히신문』 <東學黨巨魁宣告餘聞>(1895년 5월 8일(4.14)), 참조.

32) 감옥서는 1894년 전옥서를 감옥서로 개칭하고 <監獄規則>을 제정하면서 설치되었다. 이후 감옥서에 관한 규정은 몇차례 변하다가 1898년에 <監獄細則>을 제정하면서 정비되었다(『內部令』, 內部 편 미상[1898년(광무 2)](규 26315), 1책(11장).

소에서 최종 교형으로 선고받았다. 이후 다음날 언제 어디서 그가 ‘교형’에 처해졌는가 하는 처형 장소는 아직 일부 의문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도쿄아사히신문이나 오사카아사히신문에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었다. 대신에 전봉준 처형의 장소에서는 2개의 신문기사가 눈에 띈다.

[라] 「전봉준 사형 선고의 실황」 4월 23일 오후 4시를 조금 지나 권설 재판소에서 전봉준은 마침내 사형선고를 받았고, 다음날 오전 2시쯤 좌감옥(左監獄)에서 교죄(絞罪)에 처해졌다. (『門司新報』 1895년 5월 12일)³³⁾

[마] 「전봉준의 처결」 동학당의 결착은 오른 쪽과 같이 어제로서 종결되었다. 이내 그 수령인 전봉준은 국사범죄(國事犯罪)라는 이유로 사형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오늘 오전 2시경에 대묘(大廟) 앞에 있는 좌감옥서(左監獄署)의 교수대(絞首臺)에서 처결되었다. (『독매신문』 6382호, 1895년 5월 6일, 2면 4단)³⁴⁾

위의 기사를 종합해볼 때 1895년 4월 23일 오후 4시쯤 권설재판소에서 전봉준은 마침내 사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전봉준 처형의 장소는 위의 보도기사와 같이 종래 수감되어 있는 전옥서가 아니라 종묘 앞쪽에 위치한 좌감옥서임이 분명해 졌다. 이는 1895년 이후 중범죄인의 처형장소로 계속해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재확인될 수 있다.³⁵⁾

그런데 문제는 처형의 장소가 아니라 시점이 문제였다.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자 5명의 처형이 매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재판 처결의 결과는 곧바로 고종에게 보고되었다. 이는 『승정원일기』에 “비류 전봉준(全琫準), 손화중(孫化中), 최경선(崔慶善), 성두한(成斗漢), 김덕명(金德明) 등을 본 아문에서 나수하여 철저히 심문했더니, 죄상을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의 군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관문에서 변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 형률로 조율하여 교수형에 처하겠습니다.” 하였던

33) <전봉준 처형지인 ‘좌감옥(左監獄)’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이순우, 2017.9.13.)에서 이순우씨는 좌감옥의 위치를 전옥서가 아니라 옛 좌포청 자리로 논증하며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34) 이 기사는 4월 24일 경성통신으로 특파원 明浦生의 보도였다. 이 자료는 일본 게이오대학 후쿠자와 연구소 니시자와 나오키(西澤直子)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35) “謀反罪에 해당하는 피고인 朴銑, 李周會, 尹錫禹에게 1895년 11월 13일 오후 11시 左監獄 絞屋에서 死刑을 집행하는 건” <정의서 제53호>(법부대신서리법부협판 張博, 1895년 11월 13일, 수신자 內閣總理大臣 金弘集), 『법부청의서』, 규 17720, 제1책; “法部 指令 제7호를 받아 強盜罪人 徐華鎮, 卞萬奉, 方學俊, 金老味, 金命根, 金雲景 등 6명을 絞首하는 件은 오늘 下午 10시에 漢城裁判所檢事 試補가 左監獄署에 가서 執行하게 했다.” <보고서 제230호>(한성재판소판사 李應翼, 수신일 1896년 4월 16일, 『司法照牒』, 규 17280, 제1책, 참조)

데, 그대로 윤택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³⁶⁾ 선고가 최종 이루어진 오후 4시이후 불과 10시간만인 다음날, 4월 24일 오전 2시경, 전봉준 등의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전격 이루어진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의 처형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처형의 의미를 되짚어보자면, 1895년 4월 1일부로 신식 재판소 제도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이미 4월 19일(음력 3월 25일)부로 ‘법률 1호 재판소구성법’이 재가를 받았으며, 이 조항의 마지막인 제61조에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 즉 양력 4월 25일부터 시행함이 규정되어 있었다.³⁷⁾ 이 재판소 구성법으로 민사와 형사 사건 모두 적어도 2심의 재판과 소송이 가능해졌다. 당시 민중들에게 개인적인 억울함을 푸는 제도적 장치로서 합리적인 재판과 상소의 권한이 주어졌다는 의미이다. 농민군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되거나 처형대기 중인 많은 농민군 참여자들에게도 재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오정권과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4월 24일(음력 3월 30일) 새벽 2시에 동학농민군 지도자 5명을 전격적으로 처형해 버렸다.³⁸⁾

이러한 농민군 지도자의 처형조치는 조선 갑오개혁 정권의 반민중적, 친일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당시 민중들은 근대국가의 권리주체로서 국민의 일원이 아니라 ‘비도’, ‘난민’으로 제거되어야 할 객체로 취급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갑오개혁 정부와 일본 정부는 농민군의 처형과 법률적 처단의 공동 법적 책임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봉준 처형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겨 보자. 오늘날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자와 참여자에 대한 처형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2003년부터 공교롭게도 4월 25일을 ‘법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재판소구성법’의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서이고, 제정의 취지는 국민의 준법정신을 양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란다.

이 국가기념일은 지난 124년전 1895년 4월 24일에 처형된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려는 기념일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 갑오개혁정부가 위로부터의 개혁노선에 서서 기존의 양반관료, 지주지배

36) “又奏, 匪類全臻準·孫化中·崔慶善·成斗漢·金德明等, 自臣衙門拿囚究訊, 則情節自服, 故以大典會通推斷條, 軍服騎馬作變官門照律, 處之絞刑. 奉旨, 依允.”(『승정원일기』 고종 32년 3월 29일).

37) 『관보』 1895년 3월 29일,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1970, 190~198쪽, 참조.

38) 왕현종, 『한국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398~399쪽 ; 이이화, 『전봉준, 혁명의 기록』 생각정원, 2014, 235~242쪽.

총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무덤위에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근대법의 제정을 자랑스럽게 매년 기념하고 있다는 역설(逆說)이 존재한다.